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날을 위한 해명과 위안과 도움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진리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5
5700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5
2218 사랑은 지혜를 얻기 위한 열쇠이다.....	6
6676 모든 것을 점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드려라.....	7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9
8582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 땅의 과제가 무엇인가?.....	9
3794 자유의지. 성장의 중단.....	10
5303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의지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이다.....	12
1003 자신을 다스리라는 권면. 온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	13
1032 긍휼. 질병과 연약함.....	14
3918 모든 삶의 형편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섬김. 가난. 베푸려는 의지.....	15
5897 이 땅의 삶은 길이로 목적이 아니다.....	16
6955 하나님의 자녀권은 단지 이 땅에서만 도달할 수 있다.....	17
7642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은 기본 법칙이다.....	18
8032 무엇이 사랑인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사랑으로 바뀌는 것.....	19
8786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21
7950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22
질병과 고통과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4
5491 이 땅의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해야 한다.....	24
0687 질병과 고난의 축복.....	25
6290 운명적인 일. 해결 수단.....	25
6508 예수를 향한 헌신. 구세주와 의사. 구원자.....	26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28
2409 왜 기도가 필요한가?.....	28
3285 기도와 사랑을 행하는 일은 유혹에 대항하는 무기이다.....	29
7274 올바른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30
3927 굳은 믿음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는 일.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31
죽음 후의 삶이 계속됩니까?.....	33
2113 계속되는 삶을 믿는 믿음. 이 땅의 삶에 의한 저세상의 결과.....	33
4723 혼의 불멸. 잘못된 가르침.....	34
4757 몸과 혼과 영. 이에 대한 설명.....	35
6541 혼의 수면. 잘못 된 가르침.....	36

8745 사후의 혼들의 여러 가지 운명.....	37
이 땅에서 죽음 후에 재회가 있습니까?.....	41
6312 저세상에서 재회하는 일.....	41
6851 저세상에서 재회하는 일과 연결되는 일.....	42
죽은 사람과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4
2075 이 땅에 가까이 거하는 죽은 사람의 혼.....	44
5161 중보기도의 능력.....	45
6423 구속을 받은 혼들의 축복과 감사.....	46
6582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47
고난과 도통 가운데 어디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49
4720 믿음의 방패. 신뢰. 하나님의 보호.....	49
5593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50
6111 두려워하지 말라.....	51
6704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약속. 강한 믿음.....	52
7496 지도자 예수님.....	53
우리 사람들은 왜 서로 다른 이 땅의 삶의 기간을 보내는가?.....	55
3260 조기 사망. 하나님의 공휩. 높은 나이.....	55
8772 어린 아이들의 죽음.....	56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는가?.....	59
2776 생명의 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59
2348 죽음의 순간.....	60
7480 죽음아 너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61
적극적 안락사나 자살이 올바른 해결책인가?.....	63
0974a 불사. 영원. 자살.....	63
0974b 불사. 영원. 자살.....	63
6005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	64
육체를 어떻게 매장해야 합니까? 매장해야 합니까 또는 화장시켜야 합니까?.....	66
1899 연소. 가속화된 분해의 과정.....	66

진리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B.D. No. 5700

1953년 6월 17일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진리를 가르침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무엇이 진리이냐? 어떻게 너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고, 하나님께 진리를 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왜냐면 진리가 그에게 다른 방식으로 제공될지라도, 만약에 그가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깨우쳐 주기를 구하면, 그가 비로소 진리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그가 사랑의 삶을 살면, 이 믿음이 비로소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비로소 믿음을 생명력이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랑은 지혜를 얻기 위한 열쇠이다. 사랑은 올바르게 진리에 합당하게 생각하도록 보장한다. 왜냐면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사랑이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고,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비로소 깨어난 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리를 너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사랑의 삶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너희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낸다.

너희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자신이 있음을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를 순수한 진리로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것도 베풀어주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너희가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면, 너희가 먼저 선행 조건을 성취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 이성만을 가지고 너희 자신에게 진리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동안에는, 너희의 이성의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갈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리를 향한 의지와 진리를 향한 진지한 갈망이 있어야만 한다. 진지한 갈망은 사람들이 순수한 진리와 바꾸기 위해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가 영을 깨우쳐 주고, 순수한 진리를 구하는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한 후에, 그가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지식에 자신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은 진리를 진지하게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가 말하고 있는 진리를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세상적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진리이다. 모든 생각하는 사람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원하는, 순전히 이성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진리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래의 시작과 마지막 목표에 관한 지식이 진리이다. 창조물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지식이 진리이다.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지식이 진리이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답변해줄 수 없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리이다. 더 나아가 너희가 받은 답변이 옳다는 어떤 증명도 할 수 없는 답변이 진리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영접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거나 또는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조건을 성취시키면,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준다.

이런 순수한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진리를 영접하기 원할지, 너희 스스로 진리를 진리로 깨닫는 자세를 취할지는 너희에게 맡겨져 있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는 자유하기 때문이다. 가장 귀한 영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이를 영접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믿음에 대한 자세와 사랑에 대한 자세에 따라 영접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게 너희 사람들에게 영적인 내용이 제공된다.

아멘

사랑은 지혜를 얻기 위한 열쇠이다.

B.D. No. 2218

1942년 1월 21일

사랑을 행하는 역사는 거부할 수 없게 깨달음을 준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일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자녀들이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다른 길을 통해서는 이 땅의 자녀들이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그들이 영접할 만하게 보이는 지식이 주어지면, 이는 사단의 속이는 역사이거나 또는 그들에게 진리가 제공이 되면, 그들은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거부한다.

순수한 진리는 실제 많이 제공이 된다. 그러나 바로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부를 당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끈기 있게 붙잡는다. 그들이 잘못된 길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오류로 인도받았음을, 그들이 이해하게 해줄 수 없다.

사랑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열쇠이다. 이 열쇠가 없이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진리이다. 진리는 이성을 통해 헤아려 볼 수 없고, 심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사람은 실제 생각을 통해 진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갈망은 사랑이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런 사랑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한다. 그러면 사람은 올바른 생각 가운데 머문다. 다시 말해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생각은 진리에 합당하게 된다. 사람이 비록 이성을 통해 결론에 도달했다고 믿을지라도, 결론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의 생각은 절대로 진리에 합당하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항해 싸우는 세력들이 이런 사람의 생각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그가 자신의 사랑 없으므로 인해, 진리에 대항하여 싸우는 세력에게 자신의 심장을 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들어 갈 수 있고, 이제 사람의 생각에 혼동을 주면서, 그들의 권세를 활용한다. 하나님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두가지는 하나가 없이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단지 사랑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의 사랑 없으므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오류들이 세상에 들어왔다. 진리는 쫓겨나게 되었다. 만약에 사람들이 사랑으로 변화되면, 진리가 다시 인류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돌보아야 만하고,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모든 가르침은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은 진리에 합당하지 않거나 또는 이런 지식이 심장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동안에는, 즉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 동안에는, 혼이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지식은 사랑의 잣대로 측정해야 만한다. 이런 지식은 사랑을 행하는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와야만 하고, 다시 사랑을 행하도록 양육해야 만한다. 그러면 이런 지식은 진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이런 지식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을 점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드려라.

B.D. No. 6676

1956년 10월 24일

 모든 것을 점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드려라. 나는 의심하는 경향이 있고 올바른 판단력이 없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제공된 영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 전혀 편견 없이 너희에게 제공하게 하라. 그런 후 나에게 영의 깨달음을 구하고 받은 내용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희가 아직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받아들일 수 없게 보이는 것은 우선 버려라. 진지한 점검 후에 너희에게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 너희를 쾌활하게 하라.

나는 너희에게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고 나는 너희가 너희에게 제시되는 영적인 내용을 시험해 보기를 원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제시되는 영적인 내용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이기 보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더 낫다. 왜냐하면 그런 사상은 너희에게 축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게다가 너희가 아직 생각을 통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진지하고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고 내 일꾼들이 너희에게 나로부터 나온 영적인 말씀을 제공하면, 너희는 진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 안에 생명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은 생명을 추구하는 일이다.

모든 것을 점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드려라. 이 말은 내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믿으려는 생각과 모순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드리라고 요청한다면, 나 자신이 너희가 무엇을 믿을 지에 대해 너희의 자유에 맡긴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준

다. 왜냐면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보는 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너희는 왜 사람들이 시험해보는 일을 막느냐? 너희가 내 뜻을 어기는 일을 하느냐? 너희는 그런 믿음의 강요가 사람들에게 주는 결과를 선명하게 아느냐?

나는 항상 또 다시 의지의 자유를 강조하고 나는 항상 또 다시 각 개인의 자신의 의지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영적인 강요에 대해 경고하고 이 땅에서 실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설명한다. 성경이 또한 다음 말씀으로 너희에게 증거를 제시한다: "모든 것을 점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드려라." 진지하게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는 이 말에 놀라게 될 것이고 그가 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의 말과 누구의 가르침이 더 믿을 만 한가? 너희는 내 말씀을 통해 모든 믿음의 가르침에 대한 입장을 취하라는 요구 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누가 너희에게 영적인 내용을 제공하든 간에 너희는 영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너희가 또한 위로부터 너희에게 직접 제공되는 나로부터 온 순수한 진리를 점검할 수 있다. 너희가 주저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나에게 문의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혼이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성숙한 정도가 아직 낮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원하여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을 스스로 정한다.

모든 것을 점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드려라. 왜냐면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진지한 생각과 진리를 향한 갈망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무관심을 증명하고 그는 절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진리 안에 거하는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이 있는 편에서 그런 자세를 절대로 장려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영적인 내용을 헤아려보는 일을 장려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일은 축복이 될 수 있고 사람이 혼 성숙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자유의지가 사용되고 자유의지로 내리는 결정이 유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 땅의 과제가 무엇인가?

B.D. No. 8582

1963년 8월 7일

시제로 너희는 인간으로써 다시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에 도달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떠한 존재적인 것으로 깨닫는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한때 얼마나 높은 온전함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육신을 입은 초기 단계의 인간으로서 존재는 너희가 한때 가졌던 존재의 아주 약한 그림자일 뿐이다. 너희는 실제로 다시 자기 자신을 자기로 의식하는 존재로 깨닫고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한때 너희를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게 하는 특정한 성장 정도가 부족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비로소 다시 원래 초기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온전함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자신을 의식하는 생각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성장을 위해 이 자유의지와 너희의 이성을 활용해야 한다.

너희가 이런 성장을 전적인 의식 가운데 이룰 수 있기 위해 너희는 너희가 너희를 창조하신 분과 어떤 관계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한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된 상태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났음을 그러나 너희가 다시 온전하게 되기 위해 너희의 원래의 성품에 다시 도달하기 위해 너희가 다시 나와 연결이 돼야만 함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는 능력과 빛이 없이 남을 것이다.

왜냐면 창조주 하나님 만이 영원으로부터 능력과 빛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에 의해 창조된 모든 존재들이 그가 한때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최고로 온전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아버지의 올바른 자녀가 되기 위해 능력과 빛을 다시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온전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이 땅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 안에서 이 지식을 소화 하고 생각으로 이 지식을 분별해 보고 자신의 소견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양심의 소리를 통해 직접 전해주거나 또는 일꾼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해 이성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자신이 선물로 받은 이성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깊은 지식에 도달할 것이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양심이 주는 내적인 자극을 따르고 사랑 안에서 행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다시 영원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연결되길 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는 서서히 성장해 나가서 한때 가지고 있었던 높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 존

재가 원래 초기에 말할 수 없게 축복되게 해주었던 빛과 능력과 자유를 다시 소유하게 되길 원하면, 높은 성장에 도달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너희가 연약하고 어두운 상태를 벗어나서 밝은 빛과 가장 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노력해야 함을 생각하라. 만약에 너희의 의지가 단지 선하면 그리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성취시키면 그의 의지가 나에게 속하고 내 뜻만을 섬기려고 하면, 너희가 밝은 빛과 가장 강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실제로 이를 성취시킬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너희에게 넘치게 힘과 은혜를 부어 주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너희를 도울 준비 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너희 심장에 넣어 주어서 너희가 단지 이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킬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 들로 하여금 선한 행동과 선한 말과 선한 생각하게 하는 너희의 느낌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인간으로써 자기를 의식하는 상태에 있는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생각을 통해 영의 나라에 대한 비밀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왜냐면 너희는 더 이상 형체 안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 너희 모두는 너희의 성장을 보장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능력을 사용할지를 유일하게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너희 스스로 이런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항상 반복해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의 의미에 관한 깨달음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의 이성이 이에 관해 입장을 정할 수 있고 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이런 자유로운 결정권을 소유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책임이다.

왜냐면 이에 따라서 영원 가운데 너희가 처할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지라도 무능력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신의 상태는 그러나 끝 없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너희에게 다시 축복대신에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가 전적으로 자유한 가운데 너희 스스로 이 땅에서 마지막 결정해야만 한다.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자유의지. 성장의 중단.

B.D. No. 3794

1946년 6월 8일

나는 인간의 의지에 자유를 준다. 너희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지 못한 영적 존재의 구원을 위한, 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알게 되면, 너희가 비로소 인간의 의지에 자유를 주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자유를 허용하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비록 내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고, 단지 나의 뜻이나 허용을 통해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형편을 바꾸기 원하면, 사람들이 이 전에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나의 영원한 법칙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는 지에 따라, 그가 나의 영원한 질서를 따르거나 반항하는 일에 따라, 그가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이 땅의 운명과 영의 나라의 운명이 정해진다. 나는 절대로 전혀 인간의 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나의 피조물이 스스로 그들의 의지를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은 또한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큰 환란이다. 그러나 이런 환란은 사람들 자신의 잘못된 의지로 인해 야기된 환란이다. 내가 그들이 자유로운 피조물으로써 언젠가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 온전해질 가능성을 막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 자신을 위해 그들을 풀어줘야만 한다.

나의 힘에 의해 생성된 존재는 신적인 존재이고, 비록 이런 존재가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지라도, 존재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머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서 의지의 자유를 빼앗으면, 피조물은 영원히 자유롭지 못한 채로 머물고, 단지 자유의지로 도달할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나는 나에 의해 생성된 피조물로부터 그들의 사명에 대한 모든 깨달음을 빼앗고, 피조물을 나의 뜻대로 인도해야만 한다. 그러면 피조물은 아직 신성과 거리가 먼 심판을 받은 존재이다.

그렇지라도 존재가 원래의 상태에 가까워지게 하려면, 존재에게 의지의 자유를 줘야만 하고, 존재는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의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내가 존재에게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했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 그의 이 땅의 시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그의 자유의지에 절대로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못 사용한 의지를 오랫동안 다시 묶어야만 하고, 존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과정을 다시 가고, 새롭게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르는 은혜를 다시 얻는다면, 존재에게 다시 자유를 줄 수 있다.

이런 일은 영원히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나의 법칙에 모순되고, 존재가 가진 신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잃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에 의해 생성된 존재는 항상 영원히 나의 일부분으로 머물기 때문이다. 존재의 최종적인 목표는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곳에 나의 의지를 통해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자유의지가 가장 노골적으로 사랑 없는 일을 할지에 상관없이,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원으로부터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나의 의지가 성장하거나, 퇴보하는 일을 중단시킨다. 그래야만 완전히 잘못된 의지를 묶는 일을 통해 다시 질서 상태가 확립되어,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의 구원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 의해 생성되었고, 자유의지로 나를 떠난 영적인 존재가 그의 자유를 되찾고,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고, 언젠가 축복 되도록, 존재를 돌보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 사람들에게 새롭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의 나라의 빛의 영역을 위해 합당하게 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의 영역에 거할 수 있게 성장하지 못했음을 알게 해준다. 빛의 나라의 거주자로 영접받기 위해 전적으로 다른 상태가 필요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하고, 도달하는 일이 실제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일은 너희가 가야 하는 어떠한 변화되는 과정이고, 너희는 자유의지로 이 과정을 가야만 한다. 강제적으로 너희 성품이 변화될 수 없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너희의 상태를 정한다. 너희의 변화되려는 의지에 합당하게 너희의 혼은 빛을 받을 수 있게 또는 빛을 견딜 수 없는 굳은 형체에 둘러 쌓여 육체를 떠난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이를 아느냐? 사람에게 이에 관한 깨달음을 주면,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 생각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하고, 실수와 연약함과 덕스럽지 못한 것을 버려야만 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평화를 심는 자가 되게 해야 하고, 인내하며, 긍휼이 있게 돼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이런 모든 덕성이 자신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사랑으로 변화돼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빛의 나라의 영접을 받을 수 있게 자신을 형성한 것이고, 그의 성품을 하나님처럼 만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내 성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이로써 나 자신이 연결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왜냐면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길이 나에게 향하는 길이고, 그가 자신의 이 땅의 목표에 도달한 것이고, 그가 이제 축복된 영의 존재로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육체를 벗으면, 마지막 무거운 겉 형체를 벗은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올바른 삶이 시작된다. 진정한 삶이 영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너희에게 시작이 된다는 말이 너희 안에서 생명력을 얻게 하라. 이 전의 삶은 단지 사다리였고, 실제적인 삶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준비 기간 동안에 실제적인 삶을 얻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은 열심히 끈기 있게 이 땅의 삶을 위해 일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유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 땅의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육신의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실제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오! 너희 바보들이여!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단지 육신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 외에 다른데 있고, 이를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해주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를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런 일이 너희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기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멸망시킬 수 없다면,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너희의 변화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이 방식은 만약에 너희가 저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면,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내 영원한 계획에 따라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일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언젠가 인간의 단계에서 이런 성품의 변화를 이뤄야만 한다. 내 사랑이 이런 일을 너희가 피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단계는 생각을 수 없이 긴 모든 이 땅의 창조물을 거치는 성장과정의 마지막 단계이고, 이 과정을 육신의 죽음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너희는 인간으로써 의식적으로 의지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를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최종적으로 끝난다.

그렇지라도 영의 나라에서 혼의 성장 과정이 지속될 수 있다. 혼이 영의 나라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빛의 존재와 사람들 편에서 그에게 주는 아주 많은 도움이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존재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깊고도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 존재는 끝 없는 긴 기간이 지난 후에 자신을 다시 새롭게 증명해야만 하는, 다시 변화되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끔찍한 운명을 스스로 짊어져야만 한다.

아멘

자신을 다스리라는 권면. 온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

B.D. No. 1003

1939년 7월 12일

너희를 다스려, 온유하고, 인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종말의 때도 너희에게 시험의 시간으로 주어졌고, 너희가 종말의 기간 동안에 성장해야 하고, 너희 혼에 도움이 되게 너희를 양육하고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성취시키려고 추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 과제를 성취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 혼에 불리한 모든 것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주님 자신이 너희에게 알려 주는 것을 들으라. 이 땅의 나의 자녀인 너희는 서로 간에 사랑으로 대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만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이 땅에 거하기로 선택했다. 너희는 연약함과 실수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제공된 기회를 활용하려는, 항상 너희 자신을 강요하는 가운데 강하게 되어야 하고, 너희의 실수에 대항해 승리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만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어떠한 인내로 너희의 연약함을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간과해야만 하고, 얼마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직 줄어들지 않은 것을 생각하라. 내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할 원인을 가졌는지, 어떻게 내가 아직 최고의 오래 참음과 긍휼로 나의 자녀들을 나의 심장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실수하면,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였는지 생각하라.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죄악 되고, 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내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답하고, 결국에 가서는 나를 말할 수 없게 고통스럽게 만든 인류에 대해, 아주 큰 인내가 필요했음을 생각하라.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내가 굴욕을 느끼게 하고, 모든 고통을 가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느냐?

그렇지라도 나 자신이 이런 가장 쓰라린 불의를 인내하며,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나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들에게 나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 나는 하늘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기를 구하고, 인류를 버리지 않았고, 그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얻어, 그들을 구속해 주려고 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너희도 자신을 다스리는 덕성을 행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를 위해 살아야 하고, 항상 단지 서로 간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게 해야 하고, 종말의 때를 헛되게 살지 않아야 한다. 너희의 모든 염려와 고통을 나에게 희생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될 것이고, 모든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간에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내적인 평안이 너희 심장 안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잃을 위험에 빠지면,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공홀. 질병과 연약함.

B.D. No. 1032

1939년 7월 31일

병 든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공홀을 베풀고, 항상 그들의 육체의 고통이 이 땅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이런 고난을 줄이려고 시도해야 하고, 언제든지 그들을 돕기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한 사람이 이웃 사람을 돌보아야 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대해, 너희 안에서 사랑 없음이나 무관심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느냐!

얼마나 어렵게 이런 질병과 연약함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짓누르느냐! 그들은 이런 상태에서 무기력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해주는 모든 말에 감사한다. 그들의 귀에 사랑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자주 피폐해야만 하느냐! 그들은 외롭고, 그들의 혼은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갈망하지만, 단지 아주 적게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주님은 공홀을 가르치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한다. 공홀은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지 사랑으로 행하는 일만이 혼에게 구원을 준다. 공홀은 가장 순수한 이웃사랑이다. 왜냐하면 공홀은 돕기를 원하고, 댓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육신이나 혼이 병들 수 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혼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에게 올바른 치료의 수단을 공홀히 여기는 이웃사랑으로 제공하는 일은, 항상 말할 수 없이 큰 가치가 있다.

육체의 고통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지만,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는 혼에게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혼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연약하고 쇠약한 사람들은 두 배의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체가 자주 혼을 연약함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혼들이 게으름에서 깨어나, 이제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도록 자극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런 혼들을 도울 수 있다.

혼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인내하며 견딘다.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는 혼을 이웃사랑으로 도움으로써 혼이 이 깨달음에 도달한다. 공홀을 행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심는 것이다. 이 땅의 자녀가 이 공홀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공활을 받는 사람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아야만 하게 되고, 그 자신에게 행해지는 모든 사랑의 역사를 통해, 비추는 영의 능력을 통해, 그의 관점은 위로 향하게 되어 만한다. 이처럼 병든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공활은 두 배의 축복된 역사를 가져오고, 병든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혼의 상태를 아주 견딜만 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희의 도움과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잊지 말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일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의 고난의 기간이 영적인 성장의 기간이 되게 하라. 주님은 모든 공활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이웃사람을 향해 마음을 쓰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모든 삶의 형편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섬김. 가난. 베푸려는 의지.

B.D. No. 3918
1946년 10월 29일

너희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는 의식으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에게 의탁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만 한다. 즉 전적으로 모두 그의 신적인 인도에 너희를 맡겨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그의 의지 아래 뒤야만 하고, 그러므로 너희 삶이 단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원해야 하고, 항상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을 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진실로 너희 혼을 위해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의 계명을 너희 삶의 방식의 원칙으로 삼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너희를 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이 땅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기는 일이다. 너희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명성이 있고 권세가 있거나 또는 평범하고 연약하거나, 너희는 이런 일을 사람의 모든 형편에서 행할 수 있다. 너희가 섬기기 원하면, 너희는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어느 누구도 베풀 수 있기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의 베푸려는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전혀 물질적인 소유가 없을지라도, 그는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이로써 응답하는 사랑을 깨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가 베풀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의지는 선한 행실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 외적으로 크게 보이는 사랑의 행동도, 보여주는 행동에도, 심장 안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단지 심장을 보고, 심장 안의 어떤 움직임도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것이 없다.

진실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적은 것을 베풀 것이다. 그는 염려하며 질문하지 않고 나눈다. 그는 몇 배로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의 말씀은 진리

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며, 자신의 소유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는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일이 작은 소유가 지금까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게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의 혼은 성장한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의 인도는 목표에 도달하는 일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는 항상 올바르게 인도받을 것이다.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항상 심장의 사랑의 인도를 받게 하고,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한 분의 은혜에 너희 자신을 의탁하는, 이 한 가지 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 가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힘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게 공급하는 영원한 사랑 자신과 기도로 연결되면, 너희는 가장 큰 육체적인 영적인 위험 속에서 도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은 길이고 목적이 아니다.

B.D. No. 5897

1954년 3월 7일

세상은 너희의 의지의 시험을 위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즉 너희는 너희의 의지를 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자극해주는 일을 하는 영역으로 배치되어야만 한다. 사람이 목표에 도달하기 원하면, 그는 세상을 피할 수 없고 세상을 극복해야만 한다. 너희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이 인간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던 너희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육신을 입는 일을 피하기 원하는 혼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 왜냐면 혼이 아직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큰 저항이 그가 자유의지를 받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이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랑의 길을 갈 자세가 있으면, 혼에게 비로소 육신을 입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왜냐면 이런 자원하는 자세가 마지막 의지에 시험을 치르기에 필요한 성장 정도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모든 혼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마지막 과정을 갈 자세가 되어 있다. 왜냐면 이 과정이 혼이 남김없이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고 혼이 자유롭게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모든 옛 기억을 잃는다. 혼은 전적으로 깨달음이 없이 이 땅에 들어서고 이제 성장해 나간다. 혼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양육받고 가르침받는다. 그러면 혼은 나로부터 모든 방식으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받고 자유의지로 올바른 일과 선한 일을 행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내 편에서 올바른 결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행한다. 그럴지라도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는다. 모든 이 땅의 삶은 이제 그에게 어느 정도 선택하거나 또는 거부해야 하는 대상으로 역사한다. 왜냐면 사람이 내 나라에 있는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 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는 그에게 최종적인 자유가 손짓하고 있는 곳에서 다시 새롭게 자신의 자유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삶은 그가 가

야만 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목표 자체가 아니다. 그가 자신의 관점을 높은 곳을 향하여 머물게 하면, 그는 길을 잃지 않고 굳은 결심 가운데 그의 길을 간다. 그러나 그의 눈이 바닥을 향하면, 그는 단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바닥에 붙잡혀, 높은 곳을 향할 수 없다.

그는 이 땅에서 그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의지와 강함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는 이 땅의 길을 높은 곳을 향한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로 여기고 가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을 위해 혼을 얻으려고 싸우는 내 대적자의 모든 유혹하는 술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는 나에게 향했고 나를 향해 머문다. 그는 세상을 극복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 나라의 후보자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권은 단지 이 땅에서만 도달할 수 있다.

B.D. No. 6955

1957년 10월 26일

단지 이 땅에서만 너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온전한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땅은 영적인 존재들을 양육하기 위한 기관이고 사람들의 의지에 가장 큰 요구를 한다.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게 돕는다. 이 학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측량할 수 없는 축복에 도달하게 돕는다.

그러나 단지 이 땅의 과정만이 존재에게 하나님의 자녀권을 준다. 하나님의 자녀권은 능력과 사랑의 충만함을 직접 받는 축복의 정도를 의미하고 하늘의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고 모든 영광 가운데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이다.

빛의 나라의 축복의 정도는 아주 서로 다르다. 존재가 빛의 나라에 일단 들어갈 수 있으면, 이미 행복과 축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축복의 정도는 계속하여 높아질 수 있다. 너희의 생각에 아직 제한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아직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이 개념을 너희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그렇지라도 너희는 이 땅의 과정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추구하게 양육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게 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너희 스스로 얻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해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게 보장해주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너희에게 제공하는 아름다운 운명을 맞이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땅을 과정을 가는 혼들은 이미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성장에 나왔다. 그들은 실제 마지막 짧은 길을 갈 수 있기 위해 준비된 끔찍한 고난의 길을 거쳐 왔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 기간이 하내 위협이다. 왜냐면 이 시험기간은 끝이 없이 긴 기간 동안 가장 고통이 충만한 묶임의 상태를 거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자유를 느끼고 이 자유를 쉽게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땅은 유혹의 장소이다. 왜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은 혼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내어주기 원하지 않는 가장 충실한 추종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높은 곳을 추구하는 영적

인 존재에게 계속해 역사한다. 그러나 한때 가장 신실한 추종자였던 타락한 원래의 영이 그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운명이 꽃피우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요구되고 그들의 성품을 전적으로 바꾸는 일이 요구되고 그들의 성품을 최고의 정도의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 요구 된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과정은 이 과정이 목표로 인도해야 하면, 아주 어렵고 고통이 충만한 과정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높은 완성의 정도에 도달한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과정을 가는 것을 존재에게 쉬운 조건을 내세우는 다른 성장하는 학교를 가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 그렇지라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학교에서 그들이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취시키면, 그들에게도 행복과 축복이 주어진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귀환해야 한다. 축복은 끝이 없는 데 있다. 축복은 끝이 없이 성취되기 위해 존재가 중단하지 않고 추구하는 데 있다. 축복은 스스로 하나님 가까스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중단되지 않고 증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 땅의 삶을 통해 무엇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중간 단계를 건너 뛸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가장 어려운 이 땅의 운명에 대해 그들에게 이 땅의 과정에 거의 견딜 수 없게 보이는 운명에 대해 영원히 보상하는 아버지의 심장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그들에게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이런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야만 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육신을 입었다. 그는 사랑과 고난을 통해 혼을 영화시켜 이로써 아버지와 전적으로 하나가 된 가운데 말할 수 없게 축복 되고 축복된 상태로 영원히 머물기 위해 혼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은 기본 법칙이다.

B.D. No. 7642

1960년 7월 6일

너희는 하나님의 법칙을 버릴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 법칙을 어기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절대로 축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무한 가운데 가장 온전한 존재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온전함이 없다. 축복에 온전함이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축복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법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 깊은 곳으로 타락하였을 때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했다. 그러나 그렇지라도 사랑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없었고 그들 자신이 단지 더 이상 이런 사랑의 흐름의 영역에 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

로 그들 자신이 능력이 없이 머물렀다.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법에 대적했다. 그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에 대항해 자신을 닫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벗어났다. 그들은 스스로 사랑이 없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들은 죄에 빠졌다. 왜냐면 죄는 사랑에 대항하는 모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불행하게 된 상태는 이해할만한 결과이다.

왜냐면 존재가 축복되기 원하면, 존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존재는 쉬지 않고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은 영원한 근본 법칙이고 첫 번째의 하나님의 법이고 영원히 영원까지 첫 번째의 하나님의 법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사랑을 너희의 삶의 근본원칙으로 만들면, 너희가 항상 단지 너희의 생각과 행하는 것을 사랑이 정하게 하면, 너희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가 한때 가졌던 축복된 상태가 곧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너희는 영원한 법의 제정자이며 사랑 자체인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의 성품이 원래 초기처럼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비추임을 받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서 너희는 영원한 사랑 자신이 준비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존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존재는 스스로 항상 단지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영원한 법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존재는 항상 단지 축복 되지 못한 상태에서 빠질 것이고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이런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다.

왜냐면 한때 타락했던 존재인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초기에는 이란 질서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항상 단지 질서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는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존재는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할 수 있다. 존재는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한다. 그러면 존재는 그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축복될 수 있다.

왜냐면 존재 자신 안에 사랑이 있으면, 존재는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에 합당하게 된 것이고 이제 한때 자신을 생성되게 한 그와 다시 연합되기 때문이다.

아멘

무엇이 사랑인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사랑으로 바뀌는 것.

B.D. No. 8032

1961년 11월 4일

너희는 항상 사랑의 삶을 살게 권면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사랑은 내게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내 근원 요소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면 그는 사랑 자체인 나를 거침없이 그에게 당기기 때문이다.

그럼 내 뜻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너희는 너희가 인간의 몸을 입을 초기에 너희 존재의 자기 사랑을 자기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 달리 말해 요구하고 소유하려는 사랑에서 이타적이고 주고자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

내 대적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반대가 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너희 안에 심는데 능숙하다. 그는 너희 안에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일깨우는데 능숙하다. 그가 너희 가슴 속에 자기 사랑을 심었는데 너희는 이 사랑을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없는 사랑으로 바꾸고자 해야 한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라. 너희 스스로에 대해 좀 덜 생각 해야 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너희에게 중요해야 한다. 너희는 이웃을 행복 하게하고 깊은 사랑이 넘쳐흘러야 한다. 그러한 사랑만이 신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시간과 영원을 초월해 다시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인 사랑의 삶을 살게 계속 권면 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내 사랑의 계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랑의 삶이 사람의 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 줘야 한다. 그리고 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시원한 답을 얻는다. 그들은 내 사랑을 거부하고 내 질서를 지키지 이탈하였으므로 내 사랑의 흐름 밖에 거하고 그 결과 그들 성품에 있어 잘못되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을 때 겉으로 사람처럼 사는 것 같으나 그 존재는 죽은 반면, 사랑의 힘이 생명을 보장함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 사랑에 대해 의식적으로 싸우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랑의 수준이 영생에 속함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란 개념은 자기가 없이 주려고 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사랑임을 알아야 한다. 그가 자기 존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면, 곧 하나님 사랑의 효능을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그 안의 빛이 된다. 그는 영의 흑암 가운데 빠져 나오게 되고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그는 내 영에 의해 돌리게 되어 가르칠 수 있다. 왜냐면 그의 내적 깨달음이 그로 이 깨달은 바를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준다. 그러나 이 동료는 먼저 사랑의 삶을 통해 이에 대한 이해력을 갖기 위해 또 배운바 지식을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환한 밝은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사랑은 결과적으로 밝은 영적 상태에 이르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말로만 내 사랑의 계명의 성취를 속이게 된다. 사랑은 첫째요,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는 불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행해지는 곳에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르고 그 안의 한 내면의 빛이 불 붓고 그리고 그는 현명하게 말한다.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영이 말하고 내 스스로 그를 통해 의사 표명할 수 있고 내 말은 진정 빛이요 생명이고 깊은 지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랑의 삶의 효력을 알아 차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랑에 거하는 자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영이 역사한다. 내 영은 너희가 진실로 내 임재를 더 이상 의심치 않게 나타난다.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다.

B.D. No. 8786

1964년 3월 21일

너희에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의 사랑의 정도를 높이려고 하라.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위험에 처한 이웃을 영접하라. 이를 통해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 너희 이웃을 한때 축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내가 창조한 너희의 형제로 여겨라. 가장 큰 기적을 이루고 너희 인간들이 가능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지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라. 나는 진실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항상 단지 내 사랑과 지혜가 언제 내 능력이 나타나게 할지를 정한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사랑으로 내 의지와 내 사랑을 정할 수 있고 너희는 나에게 강요를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일을 아주 기뻐한다. 왜냐면 사랑은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고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주면, 마찬가지로 내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내 너희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한 과제를 주고 나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를 안다. 나는 그가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지 언제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지 안다. 나는 자신의 도움을 주려는 준비된 자세를 통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 세상적인 종류이든 영적인 종류이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너희가 그에게 전하게 한다.

세상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 너희는 나를 항상 사랑을 증명한다. 왜냐면 너희가 내 가장 작은 형제에게 행하는 일이 나에게 행한 일이기 때문이고 게다가 너희는 나에게 너희가 이미 물질을 극복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인 것을 나눠주면, 이런 일은 내 역사이다. 내가 너희가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혼이 지치고 배고파 너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너희에게 인도해 그들의 혼이 강해지고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도움을 주려는 자세에 내가 특별한 상급을 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일은 생명을 주는 영적인 내용을 전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가 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전하면서 나를 섬기는 사람과 이웃의 혼의 구원에 심장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내 도움을 받는 일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랑의 역사를 실행하기 때문이고 그가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다시 전하기 위해 이전에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먼저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나를 항상 사랑의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 땅에서 그를 인도할 것이고 그의 모든 길을 축복할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특별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내 약속들을 성취시켜 줄 것이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위험 가운데 처한 모든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그들에게 너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 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진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진실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너희가 나누어 줘야 할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계산하지 말고 충만하게 주라. 왜냐면 너희가 측량하는 대로 너희가 측량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주는 것

은 항상 너희가 도움을 주게 하는 너희의 사랑의 정도의 합당하게 천 배의 보상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염려하기 때문이다. 항상 단지 너희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고 모든 유혹을 이기라. 너희의 성장 정도에 위협을 주는 사랑없음에 너희가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항상 내 임재를 느끼고 행복한 정도로 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전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단지 내 지혜가 올바른 때가 언제이지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너희가 분명하게 내 사랑을 체험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너희의 육신과 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때가 언제 인지를 안다. 왜냐면 내 도우려는 의지는 너희의 도우려는 의지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주기 원하는 내 은혜의 선물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B.D. No. 7950

1961년 7월 26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너희는 구속을 받았다. 이 구속으로부터 모든 우주의 어떠한 존재도 제외되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그의 역사를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역사를 완성했다.

그러나 존재 스스로 이 역사를 인정해야만 한다. 의식적으로 구속사역을 활용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자유의지로 자기를 깊은 곳까지 따랐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존재들은 자유의지로 대적자에게 향했고 하나님을 떠났다.

존재는 자유의지로 그로부터 다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존재들은 그를 떠나기 위한 능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대적자에 의해 전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았으면, 존재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머물렀을 것이다.

예수는 구속사역을 통해 그는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를 구매해 타락한 자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어서 존재들은 이제 대적자에 대항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었다. 구속사역을 통해 어떠한 존재도 귀환하게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은 그가 귀환하게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귀환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귀환을 위해서는 항상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타락한 영의 존재들이 순식간에 구속을 받았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창조의 작품들은 이미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은 한때 타락한 영의 존재들이 이 땅의 과정을 자유롭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게 만들어 졌다.

만약에 그가 예수의 구속사역과 그가 얻은 은혜를 활용하면, 그의 구속은 확실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출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헛되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게 된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또는 저세상에서 성장해 나가서 다시 빛과 능력과 자유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역사할 수 있다.

그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의지만이 필요하다. 왜냐면 예수가 그를 위해 죄를 속죄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를 위해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빛의 나라의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 구속역사가 자신을 위해 완성되었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어야만 한다. 그는 예수를 자신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기 위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이런 구속역사의 축복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큰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 스스로는 자신의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대항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의 존재들이 구속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모든 타락한 영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했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를 구매했다. 이제 모든 존재가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진 단계에 스스로 다시 도달하게 하면, 이 은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너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지식이다.

왜냐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의 집의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절대적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나 너희에게 전적으로 구속을 보장해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는 구속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절대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죄짐이 너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는 이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 죄를 십자가 아래로 너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이로써 너희를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구매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갈 수 있다. 단지 너희의 의지가 이 은혜를 의식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너희는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너희는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를 완성시키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 너희의 성품을 다시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다. 너희는 단지 가장 긴밀하게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너희의 혼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로서 이제 빛과 축복에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질병과 고통과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의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해야 한다.

B.D. No. 5491

1952년 9월 20일

이 땅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너희에게 주어졌다. 너희는 모든 일에서 성숙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완고하고 환멸을 느끼는 가운데 너희의 성장이 퇴보할 수도 있다. 왜냐면 너희가 외부의 영향에 의해 어떤 태도를 갖도록 강요받지 않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가장 깊은 심장에서부터 동인이 되어 높은 곳을 추구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면 모든 일이 너희를 온전하게 되도록 섬길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사랑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 잡히고, 하나님이 너희 자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에게 만들어 주고, 너희가 단지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면 되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런 은혜를 사용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영적 성장에서 넘어지거나, 퇴보할 수 있느냐? 은혜는 분명하게 효력을 가진 수단이고 특별하게 도움을 주고, 위를 목표로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 자신에게 인도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환난이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를 인정하고, 고난이 사람이 그가 도울 수 있고 돕기 원하는 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위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들면, 이런 환란을 은혜로 여겨야만 한다. 너희는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고, 이런 연결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높이 성장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일이 이미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에 의해 시험받는 너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고난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너희 사람들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또한 자주 도움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너희가 아직 자원하여 속해 있고, 너희가 아직 돌이키지 않은 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생각으로 섬기는 자가 너희를 항상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닫기를 원하고, 너희 사람들에게 자주 고난과 고통의 형태로 다가간다. 그러나 너희가 그에게 도피하고, 너희의 생각을 그에게 향하게 하면, 너희는 그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다면,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위와 같이 굳게 의지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부르기도 도달하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는다. 왜냐면 가장 작은 생각도 그에게 도달하고, 그가 너희를 위해 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단지 너희를 위하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게 하는 그의 사랑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에게는 해결하는 일이 불가능한 고난은 없다. 왜냐면 그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와 그의 은혜에 너희 자신을 의탁한다면, 그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다.

아멘

질병과 고난의 축복...

B.D. No. 0687

1938년 11월 27일

고난의 상태가 사람들이 자주 이 땅의 전 생애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한다. 이러한 일은 혼에게 유익이 되고, 아주 자주 육체에게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깨닫고, 자신의 성품을 바꾸려고 애쓰고, 이로써 미풍양속에 맞는 삶의 방식이 건강한 육체에 또는 병든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현저하게 도우면서, 육체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에 전적으로 어긋난 것을 바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육체는 자주 병이나, 오랜 질환을 겪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모든 경고와 권면이 자주 질병이 이룩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세상의 기쁨을 떠나게 되고, 그는 전적으로 다른 빛으로 이 땅의 삶을 보게 된다.

그는 육체의 무상함과 무기력함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에 대한 느낌이 이런 상태에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를 무의식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인도한다. 그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들을 더 빠르게 생각할 것이다. 그가 이러한 생각에 반항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생각이 변화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가 이제 빛의 존재가 밝은 생각을 통해 답변해줄 질문을 하게 하면서, 자신의 혼에 대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는 이제 서서히 자신이 동의할 수 있고, 내면에서 받아드리는 영의 영역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가 세상의 요동 가운데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긴 시간은 혼에게 유익이 되지 않게 보낸 시간이다. 그러나 이처럼 작은 시간으로 이미 충분하고, 그를 현저하게 더 전진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 올바른 길에 들어섰고, 이제 자신의 혼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곧 고난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아야만 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운명적인 일. 해결 수단.

B.D. No. 6290

1955년 6월 21일

내가 너희가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해야만 하는 상처는 진실로 분노와 사랑이 없는 표현이 아니고 또한 너희의 잘못에 대한 공의한 처벌의 증거가 아니다. 그런 상처는 단지 너희에게 책임이 있는 질병을 제거하는 치료의 수단이고 너희의 혼이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너희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질서에서 벗어났고 벗어나지 않았다면 단지 행복과 축복이 너희의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너

희를 위해 축복을 준비해주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에서 벗어나 있다면, 너희 자신이 이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나 너희를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게 하고 너희를 다시 제한이 없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모든 일을 시도한다는 것을 믿으라.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과 슬픔과 비참함과 질병이 명백해질수록 내 계명을 어기는 일이 더 심해지고 너희 사람들 스스로가 위험을 통해 너희가 어떤 저조한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사람들이 내 영원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심한 재앙을 당하기 보다 축복되기를 원한다. 비록 각 사람은 자신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만큼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희 사람들은 연관관계를 모르고 너희는 또한 불행이 영향을 미친 범위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개인의 운명이 누가 다시 성숙하도록 돕는 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또한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너희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감당하겠다고 제안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게다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이면 내가 또한 십자가의 운반자로 나 자신을 제공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타깝게도 자주 내 도움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짐 때문에 원망하고 자주 짐이 너희에게 너무 무겁다고 불평한다. 사랑이 너희가 십자가의 짐을 짊어 지기 위해 자신을 드리도록 움직였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의지를 통해 나에게 속했다고 믿는 너희가 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용하게 원망하지 않고 너희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너희가 순종하는 가운데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순종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일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것을 깨닫는 가운데 항상 내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운명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던 너희는 너희의 운명에 반항하지 말라. 너희가 나에게 속하기 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일이 단지 너희의 구원을 위해 도움을 주고 내 영원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임을 항상 확신하라. 너희가 언젠가는 이를 깨닫고 나에게 감사할 것임을 확신하라. 내가 너희가 어려움들과 운명적인 일들이 함께 하는 이 땅의 길을 가게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당한 모든 일들의 이유가 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라. 왜냐면 내 사랑은 항상 너희가 축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를 향한 헌신. 구세주와 의사. 구원자.

B.D. No. 6508

1956년 3월 22일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난 죄가 너희를 부족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너희를 불행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들이 그들의 큰 죄짐을 벗고 그들 스스로가 이전에 육신을 입었던 기간에 그들에게 가능한대로 죄값을 치르고 이로써 그들이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즉 내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하면, 그들이 다시 전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자유의지로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이 땅으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제 한때 멀어졌던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자원하여 나를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러면 그들은 원래 초기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구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일이다. 너희가 이런 헌신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려는 너희의 의지를 표현한다. 그러나 너희가 진지하게 십자가 아래로 도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전적인 믿음으로 너희의 구세주요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형제인 그에게 가느냐? 너희가 전적으로 진지하게 그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얻은 그의 은혜를 활용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영으로 진리로 말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를 고백할 때 단지 빈 말을 하느냐?

그는 진실로 너희의 구세주요 의사이고 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이다. 그는 나 자신을 모신 겉형체이다. 그러므로 그의 권세와 힘은 무한했다. 이런 예수는 볼 수 있는 신성이고 신성으로 머문다. 내가 그를 택했고 이로써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인 내가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부르면, 너희는 나를 부른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성취시켜준다. 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어떤 것을 구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적인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저하지 말고 구세주와 구원자에게 너희를 맡기라. 이로써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지킨다는 증거를 줄 수 있게 하라. 너희는 내가 항상 너희가 영으로 진리로 모든 기도를 하게 하고 너희가 모든 몸과 혼의 고통 가운데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고 내 말씀을 기억하라. 내 말씀이 너희 심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왜냐면 내 약속은 진리이고 너희 자신이 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정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 너희의 죄를 짊어졌고 너희가 너희의 원죄에 대한 속죄로 견뎌야만 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했다. 내가 그의 죄를 그를 위해 짊어지도록 사람이 자신의 죄를 나 자신에게 넘겨준다면, 모든 사람의 삶이 염려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그의 기도와 함께 해야만 한다. 그는 내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믿음이 아주 연약해 그의 기도가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그가 아직 내 사랑이나 또는 내 권세를 의심한다면, 내가 내 영원한 질서를 여기면서 그의 고통을 피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돕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면, 이런 내가 주는 보장을 활용하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졌고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너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면, 너희가 비로소 내 구속역사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향한 모든 의심이 비로소 사라질 것이고 너희가 비로소 전적인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비로소 너희의 고통을 너희에게서 거두어 드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비로소 너희의 나에게 귀환이 완료되고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영으로 진리로 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한가?

B.D. No. 2409

1942년 7월 15일

현재에 사람들이 단지 물질을 추구한다. 이는 영적의 성장이 중단된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퇴보할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혼들을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 얻으려고 혼들을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대적자가 성공하면 할수록, 그로부터 다시 자유롭게 되어, 저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된다. 사람의 의지는 약해지고, 단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변화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도가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게 타락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위험 가운데 능력을 구하는 모든 부름은 성취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대적자의 역사인, 자신이 처해있는 영적인 위험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이로써 그가 기도의 은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가 이제 기도를 도피처로 삼고, 자신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에 의해 그는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해주는 환경에 처한다.

하나님은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지원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모든 고난을 줄여 준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을 의식적으로 갈망하기 원하고, 구하는 자로써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 자신에게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때 거만한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의식하고, 자신의 능력을 공급받은 분을 떠난 존재에게 이런 고백을 요구해야만 한다. 존재는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능력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존재는 이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하나님께 다시 속하기 위한 능력이 전적으로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가 자유의지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은 다시 자유의지로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므로 존재의 의지에 반하여 그에게 능력이 공급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취시켜주는 능력을 구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자신이 능력의 공급자인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재가 기도를 통해 한때 그가 가졌던 저항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위해, 이로써 원래 초기에 그가 정함 받은 대로 다시 능력을 공급받는 자가 되기 위해, 모든 의지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가 기도와 사랑을 행하는 일을 줄이면, 너희는 악의 세력에 쉽게 희생될 수 있다. 악의 세력은 모든 약점이 너희를 전복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너희가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취하고 기도와 사랑을 통해 얻는 힘이 너희에게 부족하면, 악의 세력이 이 일에 성공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안전하게 느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너희의 혼의 원수가 친구의 가면을 쓰고 너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를 쉽게 다룰 수 있기 위해 너희를 얻으려고 한다. 너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너무 늦게 혼의 원수를 깨닫는다면, 너희는 더 이상 그의 교활함과 속임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도는 원수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보호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악에 대항할 수 없는 벽을 세우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연결은 너희가 하나님의 힘을 직접 공급 받게 해주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역사를 통해 보호벽이 세워지고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대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와 사랑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결은 비록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혼의 원수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계획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룰 수 없는 일을 내일 시도하고 사람이 끊임없는 유혹에 약해져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그가 거의 저항 없이 굴복할 때까지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긴밀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자에게 사람의 혼을 무조건 넘기지 않고 모든 혼을 얻기 위해 씨름하고 모든 혼을 자신을 위해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인간의 의지가 힘을 받아드린다면, 하나님은 힘이 부족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저항하려는 의지가 적다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승리할 것이고 그 전에 주님은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부여하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너희가 사랑없는 행동을 통해 너희를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에게 맡기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고 너희가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만 하고 너희에게 방어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삶은 영원한 싸움이다. 왜냐면 빛이 끊임없이 어두움에 대항하여 싸우고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힘이 기도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그에게 풍성하게 제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왜냐면 사탄의 음모가 위험하고 사람이 위로 향하려는 추구를 게을리 할 때 사탄이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머물라.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항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의 가장 충성스러운 보호자로 얻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 혼의 원수에게 너희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올바른 방식으로 구하면, 너희는 나에 의해 모든 일을 도달할 수 있다. 너희는 요구하지 않고 심장에서부터 겸손하게 나에게 내가 세상적인 영적인 위험속에 있는 너희를 돕기를 구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나는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줄 수 있기 위해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올바른 기도를 요구한다.

무엇이든지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희 사람들이 더 이상 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 권세에는 제한이 없고 내 지혜는 모든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러므로 항상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역사할 수 있다. 내 사랑이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아직 내 자녀라면, 나는 너희들 섬기는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기도는 내 귀에 도달하는 기도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나에게 능력과 도움을 간청하면, 이런 기도는 내 귀를 스쳐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 기도가 가장 깊은 겸손으로 나에게 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구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요구는 입술로 드리는 많은 기도들이다. 왜냐면 기도의 축복의 도달하기 위해 단지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 만이 필요하다고 사람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도에 깊이와 영을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심장의 느낌이다. 항상 단지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그의 기도를 듣기 원한다. 그러므로 내 귀에 도달하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기도는 단지 적은 수의 말로 충분하다.

그러나 긴 형식적인 기도는 나에게 끔찍한 것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그의 생각이 머물지 않고 단지 그의 입술 만이 말한다. 이런 기도는 나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들은 헛되게 말해진 것이고 단지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사라지게 하는데 기여한다. 왜냐면 내가 이런 기도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묻어 버리기 때문이다. 믿음은 항상 더욱 사라질 것이다.

왜냐면 내가 단지 심장이 이루어야만 하는 사람 안에 내 임재를 보장하는 내가 이제 그에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면서 아버지로서 나를 내 자녀에게 계시해주는 긴밀한 연결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

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라고 일컫는 것은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사명을 따라 드러지지만 사람의 심장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 몇 시간 동안의 기도보다 나에게서는 짧은 탄식의 기도가 더 좋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또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심장이 동참하면, 단지 적은 수의 말로 충분하다. 그러면 나는 내 귀를 닫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녀가 항상 단지 아버지께 구하고 자신의 아버지께 간청하는 일을 도와주고 보장할 것이다.

굳은 믿음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는 일.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B.D. No. 3927
1946년 12월 2일

너희가 단지 굳고 흔들리지 않게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나에게 의해 모든 것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를 향한 나의 아주 큰 사랑을 명심하면, 너희는 내가 어떠한 기도도 무시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를 굳게 믿는 믿음은 그 자체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자신 안에 내가 나의 지혜로 너희에게 축복이 되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것을 보장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은 사람은 무조건 나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는 내가 그를 도와주기 원하는 대로 나의 재량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는 요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에게 자신의 부탁을 할 것이고, 항상 나의 뜻을 우선에 두고, 자신을 나의 사랑과 은혜에 의탁할 것이다. 나는 그를 아주 충만하게 도울 것이고, 나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절대로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듣지 못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로 나의 사랑이 너희의 불행을 막기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항상 기도의 성취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너희 안건을 나에게 아뢰며, 모든 계속되는 일을 나에게 맡겨라. 나의 사랑의 너희를 도와, 너희의 나를 향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확실하게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영원 가운데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라.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에게 위기가 있다면, 나에게 다가오라. 평안하고 평화로운 때에도 나를 생각하라.

나를 잊지 말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게 하라. 긴밀한 기도를 통해 자주 나와 연결을 이루고, 나를 항상 너희 가까이로 부르라. 왜냐하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를 구하면, 너희 생각이 나에게 향하고, 너희 심장이 나를 향하면,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너희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나 사이에 놓아준 다리로 들어서야만 한다. 너희는 기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 혼이 기도하는 중에 빛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향하는 다리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중에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오고, 나의 뜻대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로 불리우면, 너희 심장이 나에게 향하면, 나는 모든 간청을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에게 나오는 나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은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나눠줄 것이다. 나의 사랑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도울 것이다. 자녀가 진실로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다시 말해 영으로, 진리로 나에게 기도하면, 그는 절대로 위험을 당할 필요가 없다. 모든 기도의 은혜를 활용하라. 왜냐하면 나와 나의 사랑을 믿는, 깊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너희는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걸 보기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요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왜냐면 그러면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단지 너희에게 해가 됨을 보기 때문이다. 너희를 이런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를 나의 의지 아래 두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언제든지 자신의 기도에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말을 첨가하면, 그의 기도는 올바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 후의 삶이 계속됩니까?

계속되는 삶을 믿는 믿음. 이 땅의 삶에 의한 저세상의 결과.

B.D. No. 2113

1941년 10월 14일

혼의 구원을 돌보는 일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혼의 구원을 모든 것보다 앞서 워야 한다. 왜냐하면 혼의 구원이 인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혼을 구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사람은 항상 또 다시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받을 수 있다. 그가 이 땅에서 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보다 몇 배나 더 빈약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인간은 단지 현재에만 살고 있고, 이 현재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미래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믿음을 그가 강제로 갖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저세상의 명백한 증거를 그에게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단지 진리 안에 서기 원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영의 세계는 그에게 눈에 띄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작은 징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저 세상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사후"에 대해 아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는 이 땅에서 살고, 항상 육체의 죽음 후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이런 확신으로 만족을 한다.

그는 진정한 생명인, 영 때문에 곁형체를 떠났기 때문에, 단지 곁형체의 생명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영은 죽을 수 없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이 단지 실제 고향으로 들어가기 위해 곁형체를 이 땅에 남겨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서 영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나라가 그의 이 땅의 삶에 해당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영의 나라가 인간의 혼에게 빛이 없고, 친절하지 않고, 짓누르는 환경이 되거나 또는 빛나고 행복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고통스럽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지식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 의지가 없고, 그러나 의지에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몸만을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은 몸의 안락을 생각하고, 반면에 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인류의 위험은 크고, 이로써 육체의 위험도 아주 커져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이 땅의 모든 것의 유한함과 육체의 유한함을 눈앞에 체험하게 되고, 이로써 인간이 무한함 앞에 질문을 하는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는 이제 다른 생각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너희에게 올바른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면 잘못된 가르침이 너희의 영을 어둡게 하고, 나의 창조주의 뜻과 나의 창조주의 영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가르침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나의 지혜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로써 너희의 심장 안에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는 일을 막는다. 잘못된 가르침은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잘못된 가르침을 시정하지 않으면, 모든 믿음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단지 믿음과 사랑을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가 선명하게 되게 해주기를 원한다.

혼의 불멸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르침이 실제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혼은 어떤 영적인 것인 반면에 육체는 실제 죽을 수 있는 물질이다. 즉 육체는 사라지고, 그의 입자로 분해가 된다. 그러나 혼은 영적인 존재이고 불멸하고, 계속 존재해야만 하고, 단지 이 땅에서 혼의 걸형체의 과제를 완수한 육체를 떠난다. 혼은 영의 영역에서 자신의 성장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즉 혼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성숙한 정도에 도달했을 때 더 높은 성숙한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물질적인 걸형체를 떠난다. 또는 혼이 이 땅의 과정에서 완전한 미성숙 상태에 도달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면, 혼의 의지에 따라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러나 혼은 항상 세상의 물질적인 영역 밖의 세상의 영역 안에 머문다.

그러므로 혼에게 실제 죽음의 상태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혼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빛과 힘이 완전히 부족한 무기력한 상태이고, 혼은 항상 존재 의식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존재 의식을 잃지 않고, 존재의식이 항상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에 따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고, 또한 행복의 전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의 삶은 이 땅의 육체의 삶에 합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체가 사는 삶이 죽음 후에 혼의 운명과 거주지를 정하고, 죽음의 날이 인간에게 마지막 날이고, 그 후에 혼은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으로 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생명으로 부활한다.

혼은 어떤 영적인 존재이고, 존재하기를 절대로 전혀 멈출 수 없고 또한 일시적으로라도 소멸되지 않고 항상 영원히 산다. 단지 어둠 속에 거하는 일이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이고, 이런 상태를 평온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 날까지 휴식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면 혼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혼 자신에게 단지 고통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활동하는 일이 혼의 진정한 생명이고, 활동하기 위해 혼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숙한 정도가 필요하다.

혼은 영의 나라에 거주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땅 가까이에 거할 수 있고 혼은 단지 물질 세계 밖의 세계에 거한다. 다시 말해 혼이 더 이상 물질적 형체로 묶여 있지 않고, 혼이 빛으로 충만하다면, 혼은 자유로운 영의 존재이다. 반면에 아직 묶임을 받은 존재는 어둠의 상태에 있다. 왜냐면 전적인 무기력이 혼에게 속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혼은 절대로 죽을 수 없고, 단지 그의 이 땅의 삶을 끝낸 육체를 벗어난다.

몸과 혼과 영. 이에 대한 설명.

B.D. No. 4757

1949년 10월 9일

사람들은 육체와 혼과 영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영의 역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영은 육체와 반대이다. 반면에 혼은 둘 사이에서 거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육체나 영을 결정해야만 하고, 절대로 양쪽으로 향할 수 없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초기의 혼은 몸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그러므로 혼은 단지 몸의 모든 소원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즉 인간의 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는 것이 단지 몸의 요구를 따르고, 아직 물질인 몸과 연합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물질적 재물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이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혼은 영이 혼에게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고, 영은 자신을 관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육체가 아직 우세하고, 육체가 혼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육체가 혼의 감각과 갈망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혼은 또한 세상적인 것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수 있고, 육체의 욕망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혼은 이 땅의 삶에서 물질적인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영이 권리를 얻게 되고, 영이 이제 자신을 혼에게 표현하고, 혼이 영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혼은 다른 방향을 취하기 시작하고, 육체를 위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영적 재물을 위해 추구하게 된다. 혼은 자신을 가르치도록 허용한다. 다시 말해 혼은 영이 혼에게 전해주는 것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실제 행복하게 느끼고 항상 더 적게 육체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는 혼이 영이 혼에게 영적인 재물과 교환하기 위해 이 땅의 물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육체가 관심을 갖게 하려고 시도한다. 영이 이제 육신을 이기고, 영과 육체가 혼을 자신들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영이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는 일에 성공하면, 영이 승리자가 된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은 사람 안의 신적인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특징짓게 한다. 영은 사람을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시키는 끈이다. 영은 사람이 자신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히 연결되는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한다.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깨닫는다. 그전에는 그는 단지 자신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는 생물체로 의식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깨닫는다면,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아니고, 그는 더 높은 재물을 구한다. 그러면 그의 생각은 영의 나라로 향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분과 접촉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그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고, 그의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혼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가르치게 한다. 이로써 육체와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사람 안의 영은 끊임없이 자신과 떨어질 수 없게 연합이 되었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연합이 되어 머물게 될 아버지의 영에게 다가가도록 재촉하기 때문이다.

혼의 수면. 잘못 된 가르침.

B.D. No. 6541

1956년 5월 6일

이 땅을 떠난 혼이 심판이 날이 임할 때까지 영원한 잠을 잔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 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혼의 성장 과정에 대해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런 생각은 더 나아가 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죽음 후에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면 영원한 기간 동안 죽음의 잠을 잔다는 것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잘못 된 생각이 이 땅을 떠난 혼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왜냐면 이런 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혼들이 아주 필요할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잘못 된 가르침을 받아 아직 이런 오류를 복음처럼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가르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막기 원하는 대적자의 역사이다. 왜냐면 이런 기도가 대적자가 묶어 두려고 시도하는 혼들을 자유롭게 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가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을 대항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명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류를 수정해주는 사람들을 믿기를 원하지 않으면, 단지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설명해주시기를 구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은 가르칠 수 없고 오류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이런 혼들은 기도를 통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큰 위험 가운데 있고 이 땅에 사람들도 영의 나라로부터 더 나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빛의 세계와 이 땅에 사람과의 연결을 믿지 않고 생각으로 이런 지식을 가진 세력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단지 인간으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유효하다.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혼이 영원히 잠을 잔다는 그들의 생각은 영적인 존재들이 구속을 받는 과정에 관한 어떠한 지식도 없고 사랑과 지혜와 전능한 내 성품과 예수의 구속사역에 관해 어떠한 지식도 없다는 것을 단지 증명한다.

그들의 지식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 가장 적게라도 진리에 합당하지 않다. 그들에게 진리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들은 진리를 거부한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깨어난 영이 이런 성경의 구절을 찾게 하지 않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면, 내 말씀도 활용하는 내 대적자가 찾게 한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이 역사하고 사람이 설명을 받기 위해 나 자신에게 영을 통한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 곳에서 내 대적자는 단지 성공한다.

문자는 죽이고 영이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한다. 문자가 그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해주도록 자신을 나에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진실로 죽음으로 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도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전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해 가장 큰 오류를 사람들이 영접할 만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혼이 죽음의 잠을 잔다는 가르침은 진실로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은 저세상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이런 혼들은 살아 있지만 아주 연약해서 사랑의 기도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힘에 대해 감사하는 혼들이다.

사람들은 이런 혼들을 자주 기도하며 돌보아야 한다. 이로써 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 성장하게 하고 이제 그들 편에서 이 땅에서 이런 잘못 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신들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생각을 통해 역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땅에서 행한 사랑의 삶이 혼에게 곧 밝은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럴지라도 혼이 자신이 일할 영역을 받기 전에 혼은 먼저 오류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면 영의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 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혼은 쉽게 잘못 된 관점이나 오류를 가진 영적인 내용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행복한 혼이다. 그러나 다른 혼들은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모든 잘못 된 가르침은 혼에게 해를 입히는 역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잔다는 가르침은 특별히 해롭다. 왜냐면 이 가르침은 실제 죽음과 같은 어둠으로 인도할 수 있고 동시에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믿음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런 가르침이 잘못 된 것인지 밝고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사후의 혼들의 여러 가지 운명

B.D. No. 8745

1964년 2월 5일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영접하면, 나 자신이 너희와 함께한다.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 너희를 빛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빛과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으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만약에 이미 강한 정도의 빛과 능력을 견딜 수 있고 이 상태에서 행복한 혼들에게만 비추지 않으면, 너의 연약한 육체가 빛을 받음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를 믿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영접하게 되고 내 말이 너희 혼에게 축복만을 주는 것이 내 직접적인 손길의 증거라는 것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다른 증거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말은 능력과 빛이다. 이 말씀을 너희는 굳게 붙잡아야 한다. 내 말은 쇠해 질 수 없다. 내 말은 내 임재의 볼 수 있는 징표이다. 내 말이 만약에 너희가 세상과 세상에 요구를 따르며 이와 깊이 연합 된 것을 끊는다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빛과 능력으로 충만해 있고 세상을 통한 모든 시험에 대적할 수 있고 항상 너희의 관점은 나에게 향해 있고 내가 나와 깊은 연합으로 내 것이 되어버린 너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열어 보이지 않는 한 너희 인간들에게 아직 숨겨져 있는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깊은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다. 이런 지식이 너희를 항상 또 다시 행복하게 하고 너희에 대한 내 큰 사랑을 증거할 것이다.

이 땅에 속한 세상의 나라를 떠나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성장 정도에 따라 달라서 매우 다양하다. 부족하게 성장한 혼은 많은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세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환경에서 움직이며 어디서든지 만나는 장애물에 부딪히기 때문에 스스로 아직도 살고 있다고 믿지만 자기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그가 세상에서 했던 어떤 일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올바르게 정립해야 할 지를 모른다.

이런 혼은 자신의 낮은 성장 정도에 따라서 흑암 가운데 있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약간의 여명이 비추이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혼은 복되다고 할 수 없다. 그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는 자신과 같은 이 땅에 사는 혼에게 붙어 있으며 그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며 이런 형편에 있는 자기를 도우려는 모든 존재를 거절한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며 내면으로 향하지 않는 한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가 된다.

나쁜 삶을 살지 않았지만 사랑의 행함이 없었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안의 나라를 찾지 못한 혼이 이 땅을 떠나면, 그가 몸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 그는 여명과 같이 아주 작은 빛만이 있어 어떤 것도 알아볼 수 없고 어떤 존재도 만날 수 없으며 그의 생각으로 혼자 있는 광활한 지역에서 고독하게 배회한다. 그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연연해하며 여러 가지 사물을 그리워하며 소유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이유를 자신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에 의해서 또는 자신에게 악의를 가진 사람이 이런 황량한 곳에 데려다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또 다시 출구를 찾아 헤멘다. 그는 이런 황량한 곳에서 다른 생각에 도달할 때까지 서서히 작은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와 같은 상태의 존재와 만나게 될 때까지 끝 없이 오랫동안 이런 지역을 헤매고 다닐 수 있다. 이들 서로 간에 교류를 하는 동안에 이런 존재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해줄 수 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빛의 존재가 그와 같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들을 도와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한다. 그러면 이 혼도 서서히 높은 곳으로 성장을 시작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깨닫고 나를 믿고 사랑의 삶을 산, 즉 그의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혼이 육체를 떠날 때 빛의 나라로 가게 된다. 그는 깊은 행복을 느끼는 자기와 같이 빛으로 비추임을 받는 존재로부터 영접을 받는 영광스러운 지역으로 가게 된다. 이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된다.

그들이 자신이 거하고 싶은 곳으로 어디든지 갈 수 가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혀 알 수 없었던 복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것을 준 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를 것이다. 그는 번개와 같이 그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깊은 지혜의 지식이나 이 땅에서는 비슷하게라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의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땅의 사람이든지 영계에 있는 존재이든지 간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는 모든 헌신으로 나를 섬기려고 할 것이고 자기와 같은 성장을 이룬 존재들과 연합해 크게 능력을 발휘하며 큰 능력을 요구하는 구원사역에 동참할 것이다. 이런 혼들이 이 땅에서 영계로 옮겨가는 것은 단지 지금까지 죽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왜냐면 그가 진정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인간의 상태는 단지 죽음상태로 보여서 전적인 긍휼의 사랑으로 이들을 도와서 자기와 같이 생명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장 9절)

이 땅에서 너희가 저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짐작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너희는 진실로 모든 감각으로 이와 같은 운명에 도달하기 위해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을 미리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이에 관해서 알려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동안에는 너희가 진심으로 평가해보려 하기에는 너무 적은 지식이다. 혼이 죽은 이후에 인간으로부터 사랑에서 나오는 중보 기도를 받지 못하면, 종종 끝 없이 긴 시간이 소요되는 영계에서의 아주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이 땅의 삶에서 즉시로 영의 나라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자는 영광스러운 자이다.

사랑하는 생각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중보 기도가 도달이 된다. 단지 스스로 사랑의 사역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 중보 기도를 받게 되고 그러면 높은 곳을 향한 성장 과정은 쉽게 된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소원이 큰 원동력이 되어 혼이 가르침들을 영접한다. 가르쳐 주려는 영의 친구들이 이 혼이 빠르게 성장하게 돕게 된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이에 관해 정확한 상상을 할 수 없다. 단지 혼이 거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단계의 영역에 대해 암시를 줄 수밖에 없다.

자신의 혼의 사랑과 믿음의 정도가 이 빛의 나라에 갈수 없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질병과 고통 등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왜냐면 고통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보다 어떤 형태이던지 간에 확실하게 더 좋은 운명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들에게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다. 저세상에서 이들에게 이 땅에서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 닳치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열망은 세상사람들 사이에 더욱 커지게 되지만 이를 성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혼은 환상의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곧 스스로 이것이 단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쳐서 공중누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처지인가를 깨닫게 되어 자신의 환경을 바꾸려고 소원한다. 그러면 이런 혼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 땅에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영계에서 부러움을 살만 한 운명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혼들은 깊은 흑암이 그를 짓누르지는 않지만 그의 무지가 그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왜 볼 수가 없는지 어느 누구와 대화할 수 없으면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적은 능력만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가 나를 생각하게 될 때에 비로소 약간 밝아 지게 되고 이때 비로소 내 빛의 전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만약에 그가 지금까지 그의 관점을 버리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 그의 상태의 개선을 위해 도울 것이다.

영계에서 이런 힘든 체험을 하지 안 해도 되는 빛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열려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선물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 모든 사람은 복된 자들이다. 왜냐면 아버지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이 그의 사랑에 응답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죽음 후에 재회가 있습니까?

저세상에서 재회하는 일.

B.D. No. 6312

1955년 7월 15일

영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 너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떠난 후에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지는 너희 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혼의 성숙한 정도에 달려 있다. 왜냐면 성숙한 정도가 높지 않아 영으로 보는 일이 불가능하면, 혼이 먼저 성숙한 정도에 도달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은 어느 정도 성숙해야만 받은 인상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혼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존재를 알아볼 수 있기 위해 혼은 빛 안에 거해야만 한다. 비록 성숙한 정도가 낮은 혼도 자신이 존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지라도 혼에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안에는 혼은 그들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존재의 행복은 이제 이 땅에서 그들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결과로 이미 빛 안에 거하는 혼들은 항상 영적으로 같은 성숙함에 도달한 존재들에게 다가가 교제하거나 아직 연약한 혼들이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연약한 혼들에게 다가간다. 그러므로 성숙한 혼은 혼을 깨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 왜냐면 연약한 혼은 추구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하지만 증거를 통해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연약한 혼이 이 땅에서 빛의 혼이 자신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빛의 혼이 연약한 혼에게 접근하면, 그런 일은 항상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선물은 또한 성숙한 영적인 존재에게 속한 은혜이다. 영적인 존재는 이런 재회로 인해 말할 수 없게 행복해하고 이제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혼들도 이런 행복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혼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혼들을 격려하는 일을 줄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혼들은 아직 혼들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혼들이 같은 걸형체와 같은 옷차림으로 성숙하지 못한 혼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들과 가까운 혼들을 향한 갈망이 그들과 가까운 혼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이런 갈망이 엄청난 동력이 될 수 있고 깨닫는 순간이 오면 그들은 무한히 감사해하고 행복해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보살핌을 깨닫고 어둠 속에서 아직 고통당하는 혼들을 같은 방식으로 보살피고 또한 혼들을 높은 곳으로 도달하도록 돕는다.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다시 만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정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이미 이런 깨달음을 확실하게 얻었다면, 너희는 최소한 이 땅에서 너희가 빛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즉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는 너희가 이제 그들을 향한 너희의 구속사역을 이미 시작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이 알지 못하게 그들과 연결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완전히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 저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돌보라.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돌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은 상태로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라. 그러면 들어가는 일이 너희에게 이미 다시 만나는 기쁨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는 서로 간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단지 법칙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너희가 언젠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의 나라에서도 너희의 자유의지가 존중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저세상에서 재회하는 일과 연결되는 일.

B.D. No. 6851

1957년 6월 14일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혼들이 영의 나라에서 만나고 혼들의 성숙한 정도가 같으면, 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편이 같은 성숙한 정도에 도달하도록 추구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은 가장 큰 열심으로 추구하는 일을 돕기 원한다. 비록 혼들의 활동 분야가 이제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를지라도 두 혼이 함께 창조하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일이 그들을 최고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한다. 영적인 연합이 세상적인 연합보다 혼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한다. 아직 불행하지만 그러나 더 성숙한 혼들에 의해 형제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므로 더 성숙한 혼들이 그런 불행한 상태에서 구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는 일이 불행한 존재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섬긴다.

그러므로 더 성숙한 혼들이 이 땅에서 자신과 가까웠고 저세상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혼들을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돌본다. 이미 성숙하게 된 혼은 실제 저세상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혼은 성숙한 혼을 보지 못하고 자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절망하는 가운데 이러 저리 방향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갈망이 혼이 성숙하게 되는 일에 큰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갈망이 사랑하는 존재를 혼이 가까이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존재는 단지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마침내 서로 만나게 해주는 성장 정도에 혼이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한다.

그러면 혼은 온전하기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긴밀한 사랑으로 함께 했던 두 혼이 어두움의 상태에서 영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들이 계속되는 삶을 거의 믿지 않아서 한편이 다른 편을 다시 보기를 원하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다. 그런 혼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가장 크게 고독한 가운데 방황한다. 혼이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할지라도 사랑했던 사람이 혼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단지 그림자처럼 배회하고 다른 혼이 그를 보거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의 혼들이 그들을 돌본다. 그러나 빛의 혼들이 그들의 전적인 불신 때문에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조언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냉담하

고 그들에게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을 향한 생각을 단지 유지한다. 그러나 이 땅의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랑이 저세상에서도 또한 축복을 준다. 왜냐하면 이런 혼은 자신 안에 다른 혼이 최선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사랑의 생각이 이미 이런 소원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전혀 상관이 없이 이미 불타오를 수 있고 이런 소원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로써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힘은 혼이 이제 빛의 존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일로 나타난다. 빛의 존재는 혼에게 조언하고 이런 조언이 빛의 존재가 사랑하는 혼에게 유익을 약속한다.

성숙하지 못한 혼은 아직 이 땅 가까이에 거하고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단지 분리된 것을 느낀다. 그러므로 혼은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공간의 분리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므로 영적 친구들의 조언을 또한 받아들인다. 그런 혼들이 자신들을 위해 사람의 중보 기도를 받는다면, 이는 큰 축복이다. 혼은 이런 중보 기도를 행복하게 느끼고 중보 기도를 통한 힘의 공급이 빛을 받게 하고 이로써 그들의 생각이 맑아지고 서서히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까지 그들은 절대로 다시 만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빛의 존재들이 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도록 유도하려는 모든 노력이 행해진다. 그러나 어두운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저세상으로 들어갔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의 상태이다. 사랑이 또한 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위험에 처한 자신을 이제 돌보아 주기를 구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혼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올라가면, 그는 진실로 이런 사랑을 기쁨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이런 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충실한 조력자들이 다가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혼들은 언젠가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불행에서 자신을 해방시킨 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다.

아멘

죽은 사람과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가까이 거하는 죽은 사람의 혼.

B.D. No. 2075

1941년 9월 17일

죽은 사람의 혼들의 생각과 갈망이 아직 이 땅의 재물과 쾌락을 향해 있는 동안에는, 그런 혼들은 이 땅의 가까이에서 머무른다. 혼들의 갈망을 통해 혼들은 갈망하는 것과 연합이 되고, 항상 갈망하는 것의 근처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혼들이 이 땅에서 사랑했던 것과 저 세상에서도 쉽게 결별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저 세상에서 혼들이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일이 어렵게 된다.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직 혼을 사로잡는다면,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이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혼이 영적인 양식을 원할 때까지는 이 땅을 향한 갈망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막기 때문이다. 영의 양식을 받는 일이 또한 혼 안에 영의 양식을 전해주려는 충동이 깨어나게 하거나,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혼이 아직 영의 양식을 받을 능력이 없다면, 영의 양식은 혼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면 혼이 아직 이 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영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갈망하는 것의 가치를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재물을 향한 욕망은 혼의 성숙의 부족함이다. 그러므로 이 땅은 부족한 성장 상태에 있는 수많은 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에서 사랑하고 갈망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것과 결별할 수 없다. 그런 혼들에게 단지 기도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영적인 힘이 흘러간다. 이런 영적인 힘은 그들 안에 이 땅의 욕망의 성취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게 한다.

그들은 이런 힘의 유입을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느끼고, 이제 서서히 지금까지 추구하던 목표에서 돌이킨다. 이 땅의 인간이, 자주 죽은 자에게 친밀한 이 땅과 주변 환경을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면, 이 땅의 인간이 죽은 자에게 가장 큰 도움과 가장 큰 사랑의 섬김을 행할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혼이 더 높게 성장하는 일에서 퇴보하게 하다. 이 땅의 것을 향한 욕망에 대항하여 싸울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앞장을 서고, 그러면 비로소 저 세상에서 높은 성장이 시작된다. 저세상의 영적인 추구가 더 일찍 시작될수록, 이 땅의 욕망이 항상 더 약해지고, 혼은 점점 더 이 땅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혼이 영적인 재물을 향한 갈망을 느낄 때, 비로소 혼이 물질을 극복한 것이다. 그러면 혼은 단지 갈망할 뿐만 아니라 주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일의 시작이다.

아멘

너희는 죽은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능력을 너희를 떠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너희가 그들이 어떤 상장 정도에 있다고 여기든지 상관없이,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아직 힘을 필요로 하고, 모든 도움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혼들을 깊은 곳을 벗어나게 도왔다는 사실이 행복을 의식하게 한다. 만약에 너희 자신이 저 세상에 도달하여, 많은 혼들이 중보기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이 땅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비로소 이를 제대로 깨달을 것이다.

혼들이 단지 한번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이 능력을 활용하면, 혼들은 거대한 열심으로 역사한다. 그러나 먼저 사람편에서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그들을 자극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중보기도가 가장 빠르게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중보기도는 의식적으로 드러야만 한다. 즉 혼들이 그들의 성장을 하도록 도우려는 의도로 중보기도해야 한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중보기도가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제 죽은 혼들의 위험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심장으로 이런 혼들에게 능력을 전해주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혼들은 이런 능력의 공급을 확실하게 체험할 것이고, 그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감사하게 느낄 것이고, 모든 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작은 빛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들 자신의 주변을 비추는 같은 사랑을 행하게 된다.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위험과 고통을 줄여 주려는 의지가 있으면, 너희는 말할 수 없게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의지가 너희가 유일하게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심장으로 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외적인 형식이나 또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외적인 형식이나 또는 입술의 기도는 의식적으로 도우려는 의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구원한다. 이를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해줘야 한다. 너희는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너희는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많은 빛나는 빛을 어둠에 전해, 그 곳에 많은 혼들이 모이게 하고, 빛의 비추임을 통해 감동받게 할 수 있다. 이로써 그들 안의 사랑의 느낌이 깨어나고, 항상 그들 자신이 일하기 원하게 만드는 성공을 한다.

사랑의 중보기도는 그의 효과가 절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거대한 힘의 흐름이다. 이런 중보기도에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라. 생각으로 그들을 너희에게 부르고, 너희가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조용하게 저항하지 않고 너희 도움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너희가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통해 전하는 능력을 활용하기 원하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생각을 통해 가르치라. 그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라. 단지 한 분이 그들을 구속할 수 있고, 단지 사랑을 통해서만 이런 한 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힘으로 마찬가지로 다시 큰 위험 속에 있는 혼들을 도와야 하고, 이런 사랑의 역사가 그들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인도한다는 것을 알려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긍휼로 모두를 이끌어, 빛의 나라로 인도한다.

너희가 한 혼을 도와, 그에게 주어진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하게 하면, 그의 성장은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의지의 연약함과 무능력이 사라지고, 혼은 열심히 높은 곳을 추구하고, 자신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을 높은 곳으로 이끈다. 왜냐면 그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이런 혼들에게 전하고, 이로써 단 하나의 올바른 중보기도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중보기도가 실제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기 위해 사랑하는 심장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라. 왜냐면 그들 모두가 아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아직 연약한 그들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면, 그들은 너희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구속을 받은 혼들의 축복과 감사.

B.D. No. 6423

1955년 12월 12일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혼들은 넘치는 감사의 느낌으로 나를 칭송하고 찬양한다. 혼들의 의지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땅의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혼들은 그들의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안의 나를 부르고 깊은 곳에서 나에게 올라올 수 있었다. 혼들은 이제 그들의 축복을 표현하기 원하고 그들의 모든 사랑은 그들을 구원한 분에게 향하고 그분을 칭송하며 감사하는 일에 그들은 피곤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역사하여 그들이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과 같이 존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다시 도울 것이다.

혼들이 불행한 존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랑의 동역이 이런 혼들을 쉽게 해줄 것이다. 그들이 빛을 줄 수 있기 위해 스스로 빛을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가운데 빛을 발산하면, 그들은 항상 빛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빛을 받는 모든 곳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흘러갈 수 있게 자신을 여는 그릇이 있는 곳은 빛과 능력의 저장소이고 빛을 갈망하는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다. 빛과 능력이 어느 정도 각각의 혼들에게 흘러 가는지는 그들의 성장 정도와 사랑의 정도와 갈망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모든 혼들은 계속 나누어 주고 전하는 일을 통해 이 정도를 높이려고 한다.

한번 빛을 영접한 혼은 다른 혼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 수 없다. 빛은 자체에 밝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혼은 이 빛을 활용한다. 그러므로 혼이 깊은 곳에서 빛을 찾으면, 혼이 언젠가 자신에게 빛이 비춰지기 원하면, 이는 특별하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왜냐면 이제 혼에게 빛의 흐름이 중단하지 않고 흐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들이 빛의 비추임이 그들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축복된 느낌을 통해 모든 저항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확실한 효과는 혼들이 이제 다른 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빛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빛은 지혜이고 진리의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쉬지 않고 사랑의 비추임으로 발산된 이 빛이 그들에게 내 말씀을 전한다. 내 말씀은 무한 가운데 모든 존재에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저항이 없는 곳에서 반응한다. 가장 높은 혼의 성장에 도달한 존재는 내 말

씀을 직접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연약한 혼들은 내 말씀을 다시 전하는 사람을 통해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내 말은 항상 빛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내 말은 항상 축복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단지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서 축복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 말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빛을 갈망하는 존재들로 돌려 쌓여 있다.

그러나 단지 순수한 말씀이 어두움 속으로 발산될 것이고 순수한 말씀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나 자신이 모든 곳에서 혼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받아 갈 수 있는 빛의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 순수한 말씀을 이 땅에 보낸다. 이런 빛의 저장소가 영의 나라에 세워졌는지 또는 이 땅에 세워졌는지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모든 곳에서 같은 나로부터 나온 영원한 진리의 빛이 발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빛의 저장소는 자주 저세상에 있는 영의 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 주로 이 땅 가까이에서 거하는 혼들의 방문을 받는다.

그러나 바로 이런 혼들의 숫자가 더 많고 이런 혼들에게 내 말씀을 주는 일이 자주 유일한 구원이다. 내 말씀을 받는 일은 이런 혼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할 수 없다고 믿는 특별한 도움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혼들은 영의 나라에서 다시 말할 수 없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돕는 자가 된다. 그들은 나를 쉬지 않고 찬양하고 칭송하여 어두운 영역에 진정한 소요를 일으킨다. 왜냐면 그들은 혼들이 빛이 발산되어야 할 곳까지 자신을 따르도록 혼들을 설득시키기까지 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구속하는 일은 끝없이 큰 영역 될 것이다. 왜냐면 내 말씀은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만 하면, 이미 빛이 충만해진 가운데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의 나라에서 너희가 너희의 축복을 계속하여 높이기 위해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를 위해 마련한 샘 근처로 모여야 한다.

아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B.D. No. 6582

1956년 6월 28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찾지 못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묶여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 땅에서 영의 밤 가운데 사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지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들의 이 땅의 길을 가고 그들은 영이 눈이 멀었고 이런 대적자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혼은 가장 굳은 걸형체로 둘러싸여 있고 어떤 빛줄기도 관통해서 혼에게 빛을 비출 수 없다. 혼은 육체 안에서 성숙하게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입었다. 그러나 혼이 육체를 입은 초기에는 항상 육체에 굴복했고 육체는 대적자가 환영하는 혼이 성숙하게 되는 일을 막는 도구였다. 인간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은 이제 자신의 몸 안에서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 왜냐면 육체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혼을 더 굳게 감싸고 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이 빛을 향해 가는 일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이 단지 자신의 몸 안에서 살고 이로써 사람 편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그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혼이 육

체를 장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돼야만 한다. 이미 구원받은 이웃이 이런 해방시키는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 해방시키는 일은 단지 그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천해주는 일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고 자신의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혼을 구원하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에게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로써 사람 스스로가 변화되고 예수를 향한 길을 가게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진실로 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게 하는 일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전적으로 사탄의 권세 안에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대적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적자가 자기 사랑을 키우는 법을 이해하고 그러므로 그가 가장 적게라도 자신의 혼을 돕지 않고 곁형체를 분해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일어날 수 있고 자기 사랑이 그가 사랑을 행하는 일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웃이 이제 긍휼히 여기고 이런 혼을 위해 일해야만 하고 그의 몸이 혼에게 주지 않은 사랑을 혼에게 줘야 한다. 혼은 단지 사랑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랑으로 충만한 생각을 행복하게 느끼고 그는 이런 행복을 빛의 불씨처럼 느끼고 힘을 얻는 것으로 느끼고 이 가운데 선한 의미로 육체의 곁형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성공한다.

혼에게 사랑으로 도움을 주면, 모든 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너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심장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너희 모두가 구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의 사랑이 그런 혼들의 죄짐을 넘겨받고 죄짐에 대한 속죄를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의 사랑은 그들에게 그들의 의지를 바꾸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

혼은 사람 안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이다. 혼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 힘을 공급 받으면, 혼은 사람이 내면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원하도록 정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안의 사랑의 불씨가 어두움을 뚫고 혼은 자신의 잘못 된 의지의 방향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웃이 그에게 사랑이 더 많이 줄수록 변화되는 일이 더욱 확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로 효력을 나타내지 않고 머물지 않을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증보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된다. 사랑으로 충만한 생각이 뒤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기도의 대상에 포함 된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연약하고 어두움에 빠진 혼에 대한 사랑이 혼에게 빛과 힘을 주려는 원동력이라면 긴밀한 기도를 통해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일도 성취시킬 수 있다. 이웃의 사랑이 단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다면, 어느 누구도 멸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아멘

믿음의 방패. 신뢰. 하나님의 보호.

B.D. No. 4720

1949년 8월 22일

나는 너희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 너희는 이를 깨닫고 행복하게 되어 한다. 내가 방패로서 너희 앞에 서서 너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믿음의 방패 뒤에 서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은 자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고, 너희가 위험에 처하는 모든 순간마다 너희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이 너희가 모든 두려움과 위험을 물리칠 정도로 확신이 있게 되어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임재하고, 너희가 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인 덩불에 너희가 갇히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의 관점을 위로 향하게 하고, 생각으로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로 홀로 길을 가지 않고 항상 내가 동행한다. 즉 너희는 너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평온하게 살 수 있다. 세상은 실제 너희를 심하게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괴로움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나는 세상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압박하고, 내가 너희의 평화를 원하면, 세상이 너희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쾌활해하고 세상을 경시하라. 다시 말해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나의 나라가 너희가 세상을 포기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줄 것이다. 나의 나라에서 사는 일은 너희가 진실로 갈망할 만한 일이다. 왜냐면 나의 나라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또한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또한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정리해준다. 그러나 너희는 걱정을 유일하게 나에게 맡기고, 걱정이 너희에게 짐이 되게 하지 말라. 왜냐면 너희의 혼의 구원을 위해 염려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너희가 유일하게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 땅의 삶을 정리해줄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너희 자신이 너희의 의지로 살아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 혼에 대한 작업을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을 돌보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의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하도록 돌본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면, 너희는 진실로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다.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의 도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한다. 너희가 걱정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너희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고, 나는 내 뜻대로 내 지혜와 아주 큰 사랑으로 무한의 세계까지 내가 나의 피조물들에게 최선이 되도록 모든 길들을 인도하기 때문이고, 내가 나의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축복을 받은 운명을 준비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을 어두움 속으로 밀어 내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깊은 곳을 추구하고,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자신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두움의 권세자가 그들을 점령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을 어두움의 권세자의 영역으로 끌려들어 가게 하는 방식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런 모든 혼들을 불쌍히 여긴다. 왜냐면 내 원칙은 한때 나에게서 나온 모든 존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위험과 그들의 불쌍한 상태를 보고 그들 모두를 돕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을 돕도록 허락하지 않는 동안에는, 내 대적자는 그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굳게 통제하고 있다. 그들의 의지가 내 대적자에게 그렇게 할 권리를 주지만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그들의 의지가 나에게 그들을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도울 권리를 부여한다.

나는 공의 하나님으로서 보상과 속죄를 요구해야만 할지라도 나는 누구에게도 죄짐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모든 죄인들이 그들의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속죄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활용할지는 모든 혼의 자유이다. 왜냐면 내가 혼에게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면, 자유의지가 혼을 멸망에 빠뜨리고, 가장 끔찍한 감옥과 같은 아주 고통이 충만한 상태로 빠지게 한다. 혼은 내가 그에게 이런 상태를 준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혼은 나를 자신을 어두움 속으로 쫓아내고 복수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여긴다.

혼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 왜냐면 혼이 어떠하고, 혼이 어디에 거하는 지는 혼이 자유의지로 추구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는 단지 자신의 의지를 통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이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면, 이런 상태가 즉시 개선이 된다. 내 사랑은 모든 혼을 붙잡고, 혼이 높은 곳의 나를 추구하고, 혼이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나는 실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한때 나에게 반역한 죄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요구하는 일은 단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일이다.

한때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서 돌이켜 타락한 것처럼, 그가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다시 향해야 한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그러면 나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를 보상하는 일을 쉽게 해주기 위해,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자원하여 나를 떠난 영적인 존재들이다. 내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깊은 곳을 추구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들을 다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자유의지와는 반대로 그들을 다른 영역으로 옮길 수 없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었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머물 것이다. 내 공의조차도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 의해

정복을 당한다. 내 공허히 여기는 사랑은 공의를 만족시키는 길을 구했고, 피조물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조물들이 자신에게 다시 다가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신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내 사랑은 자신을 잃은 혼들을 깊은 곳에서 구원하기 위해 영원히 노력할 것이다. 내 사랑은 영원히 그런 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이다. 혼들은 깊은 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단지 이런 도움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나는 벌을 주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사랑과 공허의 하나님이고, 내가 한때 내 사랑에서 나온 존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B.D. No. 6111

1954년 11월 17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단지 굳게 믿고 흔들림이 없게 믿으면, 어떤 것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것도 너희를 짓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이 너희에게 수월한 이 땅의 삶을 의미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고 항상 너희의 생각을 모든 문제에서 너희를 돕는 분에게 향하게 하는 가운데 염려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며 곤경에 빠뜨리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내면으로 굳게 확신해야 한다. 이런 굳은 확신은 그와 같다는 것을 보장한다.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보다 더 강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어떤 어두움의 존재도 하늘의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보호를 믿으면, 너희는 너희를 해칠 수 있는 이 땅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어두움의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모두가 나에게 오라.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의 눈을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향하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너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고 너희 자신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을 거는 느낌을 갖게 되면, 너희는 더 이상 의심으로 대항하지 않고 너희에게 도움이 올 때까지 전적인 믿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이 물리칠 수 없는 일이 없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 자신이 해결책을 보지 못할지라도 항상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해결책을 찾고 모든 고난을 벗어날 길을 찾는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너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인내하면 기다릴 때까지 이 말씀을 심장 속 깊이 새기라.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향하고 이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 든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 가운데 너희는 나에게 도피할 수 있고 내가 약속한 대로 나는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내 사랑이나 내 권세를 의심해서는 안 되고 내 사랑이 항상 너희에게 향하고 너희 혼에게 단지 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항상 내 권세를 사용할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고 너희가 긴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구하면, 너희의 혼도 위험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내가 위험을 통해 이루고 원했던 일인 너희가 나에게 나와 나를 부르고 이로써 나를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일에 도달한 것이다.

너희 혼이 이미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드릴 수 있다. 그럴지라도 세상은 아직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고 너희의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벗어나게 한다. 내가 너희를 잃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일시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을 향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나를 향한 긴밀한 갈망이 줄어들고 영적인 추구가 줄어들다.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작은 운명적인 일들과 고난들과 또는 고통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로써 너희가 다시 자신을 점검하고 이전의 나를 향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한다.

세상은 너희의 원수이다. 나는 때때로 아직 나에게 굳게 뿌리를 내리지 않은 너희가 전적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수단으로 세상에 맞서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미 내소유이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이 강하게 돼야 할 너희를 항상 나에게 더 굳게 묶으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필요와 고통이 있고 이런 필요와 고통은 단지 나와 연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가올 때에 너희에게 이런 강한 나와 연결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에서 나에게 와야 하고 나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단지 나를 올바르게 신뢰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항상 너희가 구원받도록 도움을 준다는 신뢰를 하면, 나는 너희의 어떤 요청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생각을 모르고 내 계획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야 한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 이유가 있고, 비록 너희에게 이해하기 어렵게 보일지라도 모든 일이 항상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너희가 내 사랑과 내 권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리고 이로써 너희가 전적으로 내 의지를 따르고 복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과한 너희의 짐을 순종하는 가운데 짊어지면, 너희의 신뢰는 진실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주 가장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사랑과 권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역사하는 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에게 항상 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고 너희를 희망이 없게 만들 수 있는 일은 없다. 너희는 단지 너희의 완전한 신뢰와 내 뜻에 너희의 전적인 순종을 나에게 드리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내 사랑과 내 권세가 너희에게 역사하게 만들고 그러면 너희는 항상 매일이 너희에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고 고난받는 너희의 이웃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매일을 활용하면, 너희의 혼의 성숙한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난은 자신의 의지가 아직 성취하지 못한 일을 성취해야 한다. 고난이 하나님인 나에게 이 끌어야 한다. 나는 또한 내 권세로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위험과 고통을 당 하면, 그는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도피해야 한다. 사람이 나를 믿는다면, 나는 진실로 도울 수 있고 돕기를 원한다. 너희는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 가운데 나를 신뢰해야 한다. 나는 진실로 전적인 믿음과 긴밀한 기도로 나에게 향하는 사람들을 눈에 띄게 도울 것이다.

아멘

지도자 예수님.

B.D. No. 7496

1960년 1월 8일

너희가 나를 너희 지도자로 택하지 않으면, 너희 길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될 것인가? 너희가 항상 또 다시 이런 질문을 하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고 내 손을 잡고 안전하게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삼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항상 올바르게 인도받을 것이다.

너희는 잘못 된 길을 가지 않고 목표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올바른 길을 가고 이 길을 가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고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인도를 구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를 떠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의지에 반대해 이런, 저러한 길을 가게 하거나 또는 가지 않게 너희의 의지를 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항상 모든 곳에서 너희의 지도자로 일할 수 있기 위해 나는 부탁받기 원한다. 나는 모든 평탄하지 않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 너희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하게 나에게 부탁하길 원한다.

나는 너희가 저항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내 인도에 맡기길 원한다. 나는 내가 너희를 영원한 고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앞서 가는 길을 너희가 따르길 원한다. 왜냐면 단지 급경사이고 힘이 들고 능력이 필요하고 튼튼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단 한가지 길 만이 목표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1960년 1월 8일)

단지 내가 항상 너희의 인도자가 되게 하라. 너희는 곧 더 이상 잘못 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길이 잘못 된 길로 인도할까 봐 너희의 연약한 능력으로 인해 너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앞서 가면, 너희는 염려할 필요 없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 길을 짧게 해주고 모든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장애물을 넘게 너희를 옮겨주고 너희 손을 잡아 너희가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게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 없이 나를 신뢰해야만 한다. 너희는 잘못 인도받을까 봐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보다 나은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이웃들 가운데 아무리 신실한 친구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두가 높은 곳의 나에게

인도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나를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안에 어떤 염려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한번 신뢰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신뢰에 대한 상급을 주고 너희의 이 땅의 길을 내 보호하는 돌봄 아래 두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르막길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나와 함께 가는 것은 내 능력을 받고 너희가 내 손을 잡을 수 있고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목적대로 힘들이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평탄한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왜냐면 너희의 목표는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지도자로 나를 선택하면, 언제든지 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가 혼자서 가거나 또는 너희에게 접근해 너희의 길을 치장하고 유혹하는 수단으로 가득 채워 너희가 높은 곳을 가는 길이 아니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잘 이해하는 내 대적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삶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너희가 나에게 귀환의 길을 연장시키거나 또는 귀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깊은 곳에서는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아름다운 초장으로 인도하는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길은 나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피할 수 없게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장하는 일은 끔찍하게 어렵고 다시 끝 없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지도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너희는 내가 지도자로서 이 땅의 삶 동안 너희를 맡아주길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지도자로 여기는 나에게 의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위해 행하고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해 너희가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하게 하고 너희의 영원한 고향인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와 다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기 위해 너희를 기다리는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아멘

조기 사망. 하나님의 공휼. 높은 나이.

B.D. No. 3260

1944년 9월 18일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진 상태에서 이 땅의 삶에서 영의 나라로 부름 받을 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이런 일이 또한 겉으로 보기에 불의한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 택한 반면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고통 당해야만 한다는 사람들의 관점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항상 알고, 이로써 이 땅에서 더 높게 성장하는 일이 의문시 될 때, 비로소 생명을 끝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의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존재가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는 일을 허용 받는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까지 항상 단지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그의 성장 과정을 계속 같지, 정지시킬지 또는 퇴보하게 할지를 정한다. 이런 일은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써 초기에 가졌던 자신의 성장 상태를 증가시켰는지, 그런 후 자신의 성장이 정체되는 위험에 빠졌는지 또는 그가 그의 육신을 입기 시작할 때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그런 후 퇴보할 위험에 빠졌는지에 달려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높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들이는 일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계속 퇴보하거나, 계속되는 삶을 자신의 혼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공휼의 역사이다. 왜냐면 그가 육신을 입는 은혜의 기간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더 오래 살게 되면, 그의 죄짐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젊은 나이에 높은 곳을 추구하고, 그의 추구를 중단한다면, 그의 지금까지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드리고, 그에게 저세상에 계속 성장할 기회들을 준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 노년에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에게 아직 부족한 성장이 갑자기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의 오랜 동안 자신의 혼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는 더 높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장수하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그의 삶을 정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의해 정해지고, 절대로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이 맘대로 정한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이 땅에서 성장할 기회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 이 땅에서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적게 주의를 받고, 사람들은 이에 합당한 가르침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자신을 거부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언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에 도달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의 이 땅의 수명도 영원으로부터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목적에 아주 합당하고 성공적으로 깨달은 대로 수명은 아주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더 높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 땅의 삶을 절대로 조기에 끝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계속하여 인간이 이 땅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돌보고, 성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빼앗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의지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자주 혼이 완전한 배도 하는 일로부터 보호한다. 즉 하나님의 그의 이 땅의 삶을 끝내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퇴보로부터 혼을 구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높은 나이에 도달한다. 반대로 높은 나이는 주변 세계가 볼 수 없을지라도 서서히 성장하는 일을 증명한다. 장수하는 일은 항상 은혜이다. 그러나 단명한 삶도, 비록 사람이 항상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항상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

아멘

어린 아이들의 죽음

B.D. No. 8772

1964년 3월 7일

이 땅에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 하기 때문에 너희의 자유의지가 선행이 될 경우에 나는 너희에게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나는 실제로 나를 위해 그릇을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면 자유의지 만이 정할 수 있고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의지 만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행할 수 있기 위한 선행조건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주 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이런 일을 자유의지로 하려고 하는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이런 그릇들을 유지할 줄을 알고 있고 모든 위험한 환경 가운데 인도하며 세상을 향한 소원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없고 그가 단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 그의 세상적인 소원을 전적으로 뒤로 할 때 특별히 인도한다.

그러므로 포도원 농부의 일이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열린 귀를 가지고 자신 스스로 나와 연결이 되려고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의 내 종들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너희의 노력은 항상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내 나라에 많은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모든 우주 안에 한때 타락했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돕는 창조물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었다. 모든 창조물들은 자신의 고유의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존재들이 항상 성장하게 섬기는 일이다. 존재들의 상태에 따라 창조물 안의 생활 형편이 달라 진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혼들은 나만이 알 수 있는 특정한 기질 때문에 다른 행성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다시 다른 행성에서 육신을 입게 된다.

이런 혼들은 이 땅에 인간으로 다시 육신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그에게 사명이 주어 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은 어린이들의 그리고 가장 작은 어린이들의 죽음을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의 혼이 이 땅의 과정을 거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들이 더 이상 나를 대적한다고 여길 수 없어서 내가 다른 수 많은 학교에서 그들에게 계속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

는 것이다. 존재들에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학교에서 이들 대부분은 그들의 과제를 성취시킨다.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들은 영의 나라에서 복된 상태에 도달한다. 그들이 이미 높은 빛의 정도의 도달했으면 다시 사명을 목적으로 이 땅에 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을 수 있다. 한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데는 수많은 환경조건들과 기질들과 그리고 이 전 단계에서 이미 도달한 성장 정도가 역할을 한다.

도달한 성장 정도에서 다시 뒤 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뒤 떨어질 수가 있다. 자신의 상태에 맞지 않는 모태에서 육신을 입는다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커져서 전적으로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 혼을 그의 곁형체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높은 곳을 향한 그의 성장이 쉽고 확실한 곳으로 옮겨 준다. 왜냐면 이 혼은 더 이상 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타락한 자들을 나에게 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 만약에 존재들이 이 땅의 과정을 거칠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은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창조물이지만 그에게 가장 높은 영적인 성공을 줄 수 있다.

자유의지가 또는 다른 이유가 혼의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나는 이전에 미리 볼 수 있어 나는 혼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견딜 수 없고 의지적으로 나를 대적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항상 돕는 역사를 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모든 것에는 내 사랑과 지혜 안에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내 편에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영접해야만 한다.

왜냐면 어떤 것도 목적과 의미가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단지 한때 나로부터 떠나간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영적인 것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는 끝 없이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너희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고 사역하게 하였는지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돌봐 주고 모든 방식으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 혼의 저항하는 정도를 알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그의 저항력이 줄어 들었는지 줄어들 것인지 또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에 합당하게 나는 혼들을 그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1964년 3월 7일)

이 땅의 과정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나는 혼에게 이미 도달할 성장 정도를 잃고서 뒤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안다. 그러면 나는 이 의지가 뒤떨어지는 것을 제외시킬 수 없지만 자유의지를 정할 정도가 아닌 단지 나를 향한 아주 적은 저항을 고려해서 이를 막는다. 그러나 혼은 이 전에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써 육신을 입고 살지를 결정해야만 하고 그의 의지대로 이루어 진다. 강제로 죽임을 당한 어린이들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다른 조건하에 있게 될지라도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 모든 혼들은 그들이 진지하게 원하면, 그리고 정해진 성장 정도에 이르렀고 자유의지로 이런 혼들에게 주어지는 큰 요구를 성취해야 하는 사명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인간으로 임할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없다. 너희는 내 역사와 사역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피조물들 높은 곳으로 도달하게 도울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을 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이 땅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안다. 그렇지라도 나는 단지 자원하는 혼들을 돕기 위해 간섭을 하여 나 자신이 단지 나만이 알고 있는 악한 과정에 변화를 시킨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이 땅의 삶을 영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나는 연약한 자를 만약에 그가 더 이상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항상 돕는다. 어떠한 방식으로 내 도움이 주어지게 될 지는 내 사랑과 지혜에 맡겨 두어야만 한다. 항상 내 피조물들의 마지막 성장을 돕는 것이 내 노력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항상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내 자녀들을 원하고 이미 나를 추구하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들을 알아보고 이들에게 알맞게 역사할 것이고 이들이 멸망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는가?

생명의 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2776

1943년 6월 16일

인간의 혼의 성숙한 정도가 아직 아주 낮은 동안에는, 사람 안에 살려는 의지가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 일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면 세상이 그를 포로로 잡고 있고, 그가 소원을 성취한 것으로 속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계속되는 삶을 믿는 믿음이 없는 동안에는, 이 땅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인간에게 극도로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왜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 전체를 다르게 보게 하기 때문이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단지 실제적인 삶이 시작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에 머무는 장소로, 학교로 생각한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이 땅의 삶의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자주 이 땅의 삶의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 주저앉고, 삶을 최종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구를 받는다면, 쉽게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 왜냐면 그의 초점이 육체의 죽은 후의 삶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일이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비로소 진정한 생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땅과 이 땅의 재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그의 위를 향한 추구는 방해받고, 온 감각으로 세상을 갈망한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은 그가 견딜 수 없는 그를 압박하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그의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왜냐면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인간은 아직 아주 성숙하지 못한 영이다. 다시 말해 그의 혼은 아직 자신 안의 영과 하나가 되지 못했고, 그에게 깨달음이 없고, 이 땅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은 그에게 끔찍한 생각이다. 그는 즐기기 위해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재물을 갈망하고, 영적인 재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아무리 책망해도 충만하게 책망할 수 없는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이고, 사람은 이제 세상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생명을 잃을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삶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땅의 삶을 헛되이 산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물질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 땅의 삶을 더 빠르게 포기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혼이 더 높은 성장하고, 물질을 극복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의 실제 과제를 무시하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물질에 묶고, 이제 그의 이 땅의 삶을 끝냄으로써 강제적으로 물질을 벗어나게 해야만 한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동안에는 그는 자신의 이 땅의 실제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삶을 향한 의지가 그에게 아주 강해서,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가운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조기에 생명을 잃게 되어야만 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그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저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혼이 계속 산다는 믿으면서 비로소 죽음은 공포를 잃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실제적인 삶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멘

(책 33 은 2576 번의 계시로 끝난다.

책 34 에는 2733-2746 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책 35/36 에는 2747-2776 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책 37 은 2777 번 계시로 시작이 된다.

나열되지 않은 계시는 베르타 듀데의 원고에도 누락되어 있다.)

죽음의 순간.

B.D. No. 2348

1942 년 5 월 27 일

혼 이 육체와 분리되는 과정은 대부분의 육체가 큰 고통을 느끼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고통 없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정도가 요구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성장 정도에 희귀하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항상 죽음의 순간이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후에 추구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가 인간의 겉 형체를 벗게 되면,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의 혼의 상태에 따라 이제 죽음의 순간이 그에게 크거나 적게 힘들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아직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에게 또한 자신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도록 창조주가 혼에게 기회를 준다면, 혼은 저 세상에서 자신의 창조주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기 때문에, 혼이 저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짊어져야만 하고,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더 큰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없이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혼에게 더 높은 성장 정도를 가져다줘야만 하고, 죽기 전에 오랜 기간 투쟁하는 일은 항상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한 일로 여겨야만 한다.

사람들은 실제 단지 고난의 상태만을 보고, 이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순간을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단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아주 큰 사랑이 저 세상에서 그에게 더욱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사람들에게 죽음의 순간을 갖게 해준다. 이런 사랑이 모든 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단지 사람들의 육체의 갈망이 죽도록, 사람들이 더욱 단지 자신의 혼을 생각하고, 혼을 온전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도록,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보낸다. 이 일을 성공시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땅의 기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 땅의 삶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혼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하여, 그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특별한 고난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고난은 항상 혼을 성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었다면, 비록 죽음의 순간이 겉보기에 조용하고, 고통이 없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서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다시 말해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은혜이다. 하나님은 혼의 상태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순수하지 못한 것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혼의 자원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한 의도가 실행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면서, 죽음의 순간이 그의 분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영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면서, 그를 향해 다가 간다.

아멘

죽음아 너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B.D. No. 7480

1959년 12월 17일

너희가 생명력이 있게 나를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라고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의 구원자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추구하면, 너희의 종말은 축복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영의 나라의 나에게 데려 갈 것이다. 너희의 죽음의 순간은 단지 너희의 거하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고 너희 혼은 이 땅과 영의 나라를 바꾸고 말할 수 없게 축복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어려움이 혼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혼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며 신뢰 가운데 따를 것이다. 왜냐면 혼이 영의 나라의 문턱에 그를 기다리는 나를 그의 구세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왜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죽음과 내 부활을 통해 죽음의 가시를 제거했다. 내가 내 피로 너희를 구매했다. 너희는 이런 생명을 얻고 영원히 더 이상 잃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는 죽음의 순간을 근심스러워한다. 너희 이웃에게 어떻게 보이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축복된 종말을 준다.

왜냐면 나 자신 만이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지 안다. 이런 사람은 죽음과 죽음의 끔찍함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 이 땅에서 나를 따르,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원하고 고백한 그를 위해 고통이 심하게 죽었기 때문이다.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 드려라. 내가 죽음에 대한 권세자임을 내가 그의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속하게 된 모든 사람이 모든 죽음의 끔찍함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고통의 정도를 정하고 내 사랑이 함께 역사하고 사람들에게 그가 가진 능력과 자신의 혼을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죽음아 너희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너희의 승리가 무엇이나?”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내가 어두움의 권세에 대항해 얻은 내 승리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나는 나를 따르는 싸움의 위험의 시간에 나에게 신실하게 남는 사람들에게 축복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견디고 나에게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기 위한 능력을 그들에게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굳은 믿음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승리이다.

너희의 사랑이 너희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유일하게 너희의 사랑으로부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나온다. 그러므로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죽음은 너희에게 단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원하여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영역을 빛과 축복의 나라의 영역과 자원하여 바꿀 것이다. 너희는 혼이 평안하고 조화로운 곳으로 갈 것이다. 너희는 어떠한 어두움을 지나갈 필요 없고 빛의 옷을 입고 너희가 전에 전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너희에게 영광을 약속해주는 내 나라로 갈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그 자신이 너희를 이 땅으로 오지 않은 나라인 그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적극적 안락사나 자살이 올바른 해결책인가?

불사. 영원. 자살.

B.D. No. 0974a

1939년 6월 21일

이 땅의 자녀는 불멸의 문제와 영원의 개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한편으로 세상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영적인 설명을 그에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이 비로소 존재에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신성을 절대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 다음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점을 염두해야만 한다.

사람은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로써 자신이 존재하는 일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다고 믿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존재한다고 믿고, 그러므로 또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불멸에 대한, 무한한 기간에 대한, 영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이 절대로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일은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생명이 언젠가 끝난다고 알고 있는 생각이 그들에게 훨씬 더 편하다.

사람들은 때때로 시간적인 종말에 대한 생각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후에 계속 사다는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깨닫고, 결코 자신의 불멸을 믿기를 원하지 않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일은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신이 존재하기를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부담을 주고, 그 안에 책임감을 일깨워준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게 되면, 인생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일은 이해할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중단)

불사. 영원. 자살.

B.D. No. 0974b

1939년 6월 22일

그 러므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계속되는 삶을 거부할 것이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스스로 끝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로써 모든 것의 끝을 가져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이 땅의 생명을 끝내고, 그들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면, 그들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버린 것은 단지 걸형체이고, 생명 자체가 아니다. 그들은 이 생명 자체로 계속 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도 파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은 진정한 의미의 말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그러므로 영원히 지속된다.

생명을 끝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자신으로부터 존재를 창조했고, 근원적인 요소가 신적인 모든 것은 결코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자신의 지혜로 존재가 온전함에 도달하는 데 한계가 없게 했고, 또한 영원 가운데 지속적으로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존재는 계속해서 일하고, 주고, 또한 고갈되거나, 영원한 신성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이, 받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불멸을 남김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적게 상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불멸하는 것이 없고, 혼의 불멸을 사람에게 증명해줄 수 없고, 그가 이를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은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원을 이 땅의 어떤 것과도 같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이런 시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것이 증거로 증명될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믿음만이 남게 된다. 인간은 자신에게 증명해줄 수 없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영원에까지 존재가 불멸하는 것을 다른 모든 생각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

B.D. No. 6005

1954년 7월 19일

너희의 마지막 속박과 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너희 사람들에게 시간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내가 너희 혼에게 좋은 것으로 깨달은 대로 서로 다르게 주어졌고 내가 맘대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끝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혼의 모든 성장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땅에서 타락할 위험이나 또는 더 성장할 가능성을 안다.

내 사랑과 긍휼이 또한 혼의 퇴보를 막기 위해 인간의 삶을 조기에 끝내거나 또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항상 지혜로운 결정에 따라 수명을 연장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혼을 구원하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육체의 생명을 자기 맘대로 끝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사랑과 긍휼에 개입하고 너희 혼이 온전하게 되도록 제공된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구원의 계획에 개입하고 너희 혼에게 해를 끼친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 안에서 아주 큰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활용해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저세상에서 너희에게 절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위를 추구하고 너희 혼의 상태를 조금 향상시킬 수 있을지라도 너희는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것을 잃었고 혼이 가라앉을 큰 위험이 있고 혼이 자기 맘대로 생명을 끝마친 일이 반항이었던 것처럼 혼이 반항하고 이런 돌아선 상태에 머물게 될 큰 위험이 있다. 이런 혼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큰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들의 뜻에 따라 그들에게 도움이 주어진다.

나는 진실로 모든 사람의 곁에 있고 또한 심지어 가장 큰 고난도 사람이 단지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즉시 줄어든다. 고난은 또한 단지 너희 생각을 나에게 돌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로써 너희가 이제 너희의 이 땅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한다. 사람에게 이 유가 없이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혼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혼이 이런 고난을 통해 위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혼이 나에게 대한 저항을 강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내 뜻을 어기고 마지막 구원을 위해 내 사랑과 은혜가 혼에게 준 생명을 버리면 혼은 자신을 더 위험에 빠지게 한다. 왜냐면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혼에게 은혜이고 내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혼이 영원히 자유롭고 축복될 수 있기 위해 갈 수 있는 높은 곳을 향한 마지막 단계이다.

나는 인간 심장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진실로 공의하게 판단한다. 나는 내 피조물의 연약함을 고려한다. 그러나 내 피조물에게 잘못이 없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잘못 된 방향을 향하면 즉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짐을 지게 한다. 인간은 자신이 개입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없고 그는 계속 고통을 당해야만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다스릴 때까지 죄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주관자인 분에게 혼이 도피할 때까지 저세상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아멘

육체를 어떻게 매장해야 합니까? 매장해야 합니까 또는 화장시켜야 합니까?

연소. 가속화된 분해의 과정.

B.D. No. 1899

1941년 4월 28일

 든 것이 구원을 향해 간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더 높은 성장의 과정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가 이제 물질과 분리된다면, 영적인 존재는 물질을 극복한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항상 완전히 성숙하여 이 땅의 변형된 형체가 필요없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마찬가지로 물질인, 새로운 형체 안에 거한다.

그러나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자마자, 이 땅의 형체의 변화는 중단이 된다. 즉 혼이 이 땅의 마지막 형체를 벗어나, 이제 어려움이 없이 모든 물질을 벗어나,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로 들어간다. 이 땅의 마지막 형체인 육체이다. 육체는 이제 다시 분해가 된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육체를 형성하고 있던 영적인 입자들이 아직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영적인 입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목적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더 높이 성장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영적인 입자들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입자들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만 하는 곳에서, 이런 과제를 성취하면서 섬기기 위해, 그런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존재가 섬김을 통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섬길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더 높은 성장 과정이 중단이 된다. 이런 일은 존재에게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영적인 존재의 고통의 시간은 실제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성장에 개입하여,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을 이제 불태우거나, 화학적 수단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가속화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자연적인 분해를 방해한다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게 준 사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존재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길로 가고, 더 고통스러운 길로 가야만 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연적인 죽음을 통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 생명의 개입하여 종결시키지 않는 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다시 흙이 될 것이다” 라고 정함 받은 대로 이 땅에 넘겨져야 한다. 혼이 육체를 벗어난다면, 혼을 향한 육체의 과제는, 즉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의 과제는 성취되었다. 그러나 육체가 완전히 분해가 될 때까지, 비록 이런 일이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게 보일지라도,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주어진다. 반면에 빠르게 분해시키는 방식으로 인해 남게 된 영적인 존재는 지극히 작은 섬기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분해의 과정을 통해 혼과 합류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주 잘못된 오류이다. 겉형체의 영적인 존재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 운명은 영적인 존재가 언젠가, 인간의 혼으로서 이 땅의 마지막 성장 과정을 다시 가기 위해, 무수한 혼의 입자들과 연합해야 하는 운명이다.

그렇지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사람들이 잘못 믿는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만일 그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더 높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그는 그의 삶의 방식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그의 믿음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또한 육체의 겉형체 안에서 가는 이 땅의 과정을 짧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을 얻지 않는다면, 외적인 방법을 통해, 단축할 수 없는, 그의 성장을 위한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섬기는 과제를 부여할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만 한다.

아멘